

소학생

國立圖書館

★ 57호 ★



아협 발행 177

5월치

자 장 가

尹 石 重 謠
尹 克 榮 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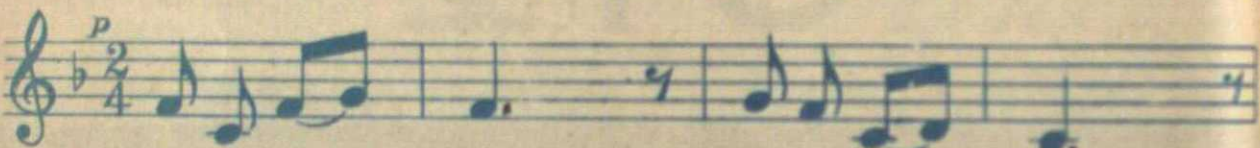
노래동무회 악보



방 물 소 외 절 절 절 절 우 리 아 기 재 겠 내
삼 살 개 가 림 림 림 림 우 리 아 기 재 겠 내
빠 옥 시 계 때 때 때 때 무 리 아 기 재 겠 내



사 키 나 키 무 아 지 - 에 을 방 물 물 달 - 어 라 -
비 들 나 비 들 강 아 지 - 야 너 가 외 서 아 - 화 라 -
려 바 라 기 꽃 시 계 - 룬 앞 마 상 여 심 - 어 라 -



우 리 아 - 기 이 편 아 - 기
우 리 아 - 기 이 편 아 - 기
우 리 아 - 기 이 편 아 - 기



잘 도 자 - 내 - 자 장 - 과 - 장 -
잘 도 자 - 내 - 자 장 - 과 - 장 -
잘 도 자 - 내 - 자 장 - 과 - 장 -



(그림·정 현웅)

소학생

1948년 5월 1일 발행

57 호 ★ 5 월치

차례

소설·마지막 공부...지현옥(4)
 소설·소년 삼국지...박재현(28)
 소설·목아반 비행...복국성(12)
 풍요·그 배.....박은경(5)
 풍요·의 장 집.....김승옥(33)
 소설·봉이 노비.....정인택(22)

☆유물담 노릇하는
 구름.....한종직(9)

☆부여 편하고 일할지
 꽃밭.....이성호(21)

☆우리의 꿈 보르 빛겨.....(38)

☆새 학교...윤석우·윤국영(2)

☆그림이 그려진...주지훈 김수환(18)

☆우리의 학교 작품
 서울 경춘 학교지.....(30)

○신승남 단편...윤형모(7)

○소학생 작품(28)복성포기(37)

○조선공부(22)이 상보화마(6)

○물막이를 쌓는 물고기...(24)

○물을 주는 물.....(35)

○-필수담 (31) 세 소식 (21)

○세계적일.....(25)

과학잡화.....한복이(11)

만화·유물담.....이영환(44)

칼럼박사 (41) 피피박사 (41)

재미있는 필공부.....(40)

꿈꾸는 인형.....(44)

오도도 만든 병아리.....(41)

부자회화(43)소학생구락부(12)

만화고 나서.....(42)

☆그림 그리실 분☆
 김 현웅·김 동환·김 의환
 김 기창·조 병덕·최 수철
 권정·김 현웅

어린이날 노래

(어린이날 전국 순회 위원회 제정)

날러라 새들이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이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거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

우리가 자라면 새나라 일군
 손잡고 나가자 조선의 벌야
 오월은 푸르거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오늘 요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날은 어머 본 어린이
 들을 위하여, 어른들이 특별히 정해 주신 명절날입니다. 언
 제나 어린이는 그 나라의 강태를 맡은 사람들이므로, 평소
 에도 소중한 사람이지만 이 날에는 더 한층 어른이고 어
 린이고 서로 앞날의 희망을 굳게 갖자는 것입니다.

소설

마지막 공부

(알폰스 도오테 지음)

피천득 번역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대단히 늦었고, 더구나 아델 선생님이 물어 보시겠다고 한 분사법(分詞法)에 대하여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꾸지람을 들을 것이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 두고 들로 놀러 돌아 다닐까 생각하려 보았습니다. 날은 참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숲 속에서 들부기가 울고 편편 우유판 제작소(製材所) 뒤에서는 쿠르쿠 병정들이 훈련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분사규칙(分詞規則)보다는 훨씬 내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다들 말 잘하여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전초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년 동안이나 우리의 모든 좋지 못한 소식이 이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전쟁(戰爭)에 걸다는 소식, 병정모집(募集), 그리고 사령부에서 오는 명령, 나는 그냥 뛰어 가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이런데는 또 무슨 일일까?”

그리고 저거리 광장(廣場)을 거닐 때, 거기서 거기 집에서 일하

는 소년과 같이 게시를 읽고 있던 대장장이 뤼슈엘은 날 보고 큰 소리로,

“에 그리 급히 달아나지 마이다. 학교에 늦지는 않을터이니!”



나는 그 영감이, 나를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델 선생님의 작은 정원으로 헐터거리며 뛰어 들어 갔습니다.

학교가 시작될 때에는 떠들적 썩는 소리가 늘 길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책상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 속히 외우려고 귀를 막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외들이 하는 소리—,

“좀 더 조용히!” 하고 책상을 두드리는 선생의 굵은 딱대기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이 떠들적 썩는 소리를 대저리에 거품을

생각이었던 것은, 정말인지 그 날은 일요일 아침 같이, 모든 것이 잠잠하였습니다. 똥구들은 벌거벗은 자리에 앉아 있고, 아델 선생님이 무서운 척 자를 꺼내 썼다 잤다 하시는 것이, 열려 있는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조용한 속으로 들어가려 하면 안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웠을 것입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델 선생님은 조금도 성난 빛이 없이, 나를 보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답하셨습니다.

“이제 네 자리에 가서 한이라 루엔스야. 우리들은 막 공부를 시작하려거든 것이다.” 나는 걸상을 넘어가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우 그때야 조금 무서운 것이 같아 앉았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정학판이 오는 날이나, 상을 주는 날이나 일으키는 주문으로 으르렁 입을 열고, 잘게 주문잡힌 벌은 벽

타이를 먹고, 수놓은 정정 바지를 입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실에는 보루피는 마른 실속한 기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실 뒤, 날 미어 있는 걸상에 온 사람들이 우리를 같이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것이 나를 가장 놀라게 하였습니다. 적어도 모자를 쓰고 있는 오델 영감, 예전 존장, 예전 우계국장, 그리고 그 밖에 몇몇 사람들. 그들은 다 시름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절 영감은 모서리가 다 깨진 뽕뽕 책을 가지고 와서, 커다란

산경을 매우 훌륭하게 쓰고 그 책을
무릎 위에 펴 놓고 있었습니니다.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을 이상스
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아벨
선생님을 고안 위해 올라가 나
를 맞이한 때와 같은 부르짖고
진중함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
씀하셨습니니다.

“지금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마지막이다. 일사쓰아
모스레누에 있는 학교에서는, 죽
일어(獨逸語) 외에는 가르치지 않
다는 명령이 제르틴에서 있다.
저 선생님이 내일 오신다. 이것
이 불안서어를 배우는 마지막 시
간이다. 마한(馬韓)정신과와 수기를
라한다.”

이 말들은 나를 정신 혼돈 사람
같이 명하게 하였습니니다. 아! 나
른 놈들! 번소 앞에 붙었던 것
이 이것이었구나.

불안서어라 마지막 수업!
그런데 나는 잘 쓰지도 못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그만 배우지
를 못하게 되었구나! 이때부터 내
머리에서 천둥이! 말도 없이 터지
던 시간이, 그러고 세 종지를 찾
아 다니며, 카야모방에서 발을
지쳐노라고 학교를 빠져나간 것이
지금까지 후회와 남습니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선생이 나오 마
니기에 무경면 문법책이나 역사
책이, 지금은 옛 동무들과 떠나
는 것 같이 인다하였습니니다. 아벨
선생님께 배워서도 그리하였습니
니다. 선생님이 떠나 가시고 나
는 못보리라 생각하면, 발을 끈
것모마찌기로 내 맞은 것도 마
이 버렸습니니다.

가엾은 어른! 이 마지막 시간
을 뒤늦게 선생님은 좋은 예복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이
제야 나는 저 온 노인들이 보일
한 구석에 와서 앉아 있는지를 깨
달았습니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주
학교에 와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
는 것 같았습니니다. 또 40년 전
이나 정성을 다하여 주신 우리 선
생님의 대한 감사의 뜻과, 쓰이져
가고 있는 조국에 대한 경의를
표하려 하였습니니다. 이렇게 생
각을 하고 있을 때, 내 이름을 부
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니다. 나의
차일 차려있습니니다. 이 분사에
관한 웅변한 공적을 처음부터 말
려지르고 특별한 소리로 외일 수
만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라고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나는 짓아
머부어 힘갈라렸습니니다. 슬그
무서워서 고개도 못들고, 결상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니다. 아벨 선
생님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니다.

“나는 너를 꾸짖지는 않겠다.
우린쓰아! 너는 발을 발을만
받았다. 이렇게 피는 법이다. 우
리는 매일 이렇게 생각하다. 애
릿!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내
일 하자. 그러하여 어떻게 피었는
가? 아! 언제나 공부할 내일보 미
는 것이 일사쓰아 큰 불행이었
었다. 무엇! 내가 불안서 사람
이라고? 제 발을 잘라지 못하
스지도 못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있
어서 우린쓰아! 내가 제일 뼈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책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 부모는 너희들을 가르
치는데는 정성이 없었다. 몇 분
의 돈을 더 얻으려고 지식들을
팔았으나 중정으로 보내기를 원
하였다. 나도 비난을 받을 일이
없지 않다. 나는 가끔 공부할 시

동요

그네

박은중

그네 올라 쫄쫄

노랑 치마 나팔 나팔

하늘 끝에 쫄쫄

노랑 나비 파랑 나비

오월이라 단웃날

그네놀이 제밋다.



그네 올라 쫄쫄

노랑치마 나팔 나팔

하늘 끝에 쫄쫄

제비 한쌍 비리 비리

오월이라 단웃날

날 저편 끝 들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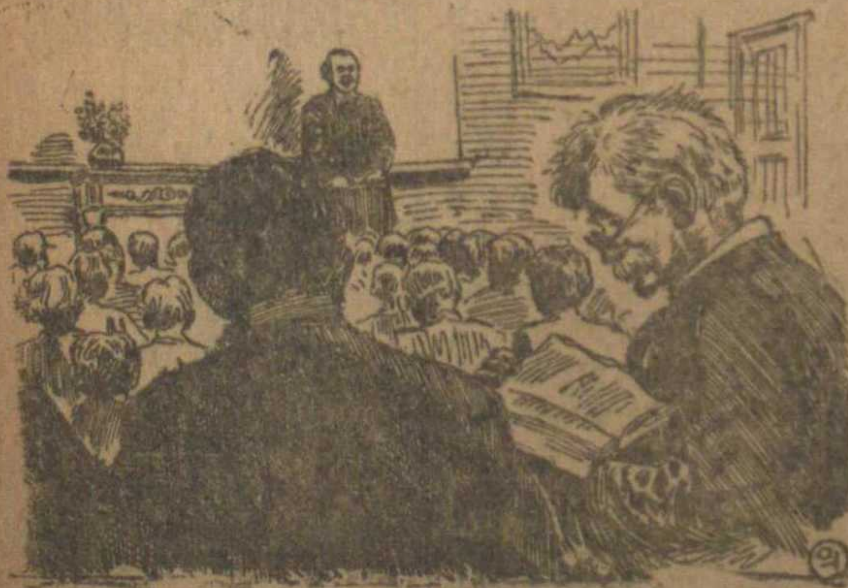
그림·정인용

백지 않고 너희를 보고 내 정열에 물을 주라고 하게 않았는가? 내가 남시절을 가고 싶은 때에는, 언제나 서슴지 않고 너희들을 곁으로 일찍 불러 보내지 않았던가."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아벨 선생님은 불안서어에 대하여 단숨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불안서어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독특하고, 제일 힘 있는 말이라고 하시며, "한 민족이 남의 나라의 노래가 되더라도, 그 국어를 꼭 지키고 옹호하는 동안은, 같은 사람이 그 관속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우리들은 불안서어를 잘 지키고 있어 버려서는 안된다." 라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문법책을 드시고 오늘 공부할 때를 읽으시었습니다. 어떻게 쉽게 알게 되는지, 나는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신차려 들은 적은 없었고, 또 선생님께서도 설명하시기에 어떻게 마음을 쓰신 적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 가없는 선생님이 자제자 떠나기 전에, 저기의 모든 지식

을 우리를 머리 속에 남겨둘 때 정어 넣어 주시라고 해를 쓰시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것이 끝난 뒤에, 술자 공부를 하셨습니다. 여 남을 위하여 아벨 선생님은 아주 세 글씨 책을 준비하셨습니다. 저기에는 아름답고 좋은 글씨로 "우타스, 알사스, 우타스, 알사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책갈 막대 때어갈 때, 온 교실안이 나부끼고 있는 것이, 작은 기쁨을 같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생하였겠습니까? 글이 위에 쓰지는 할 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한 번 동행이 한 아씨가 날아 들어 왔었지만, 아무도 거기에 정신이 팔려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은 글씨 매신 줄을 굶고 있었는데, 그 줄들이 마치 불안서어 말인 것 처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줄줄을 굶고 있었습니다. 학교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들이 낮은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저 새들도 그 놈들의 죽인 말로 울게 할까?" 하고 생각하였습니

다. 이따금 종이에서 눈을 뜰 때 보면, 아벨 선생님은 그의 책상에 소리 없이 앉아서, 그 작은 학교를 전부 눈 속에 넣어 가지고 가시려는듯이 주위의 물건들을 흠여지게 보고 계십니다. 그도 그러실 것입니다.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살으셨습니다. 정열이 있어 있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교실에서, 다만 결장파 책상이 오랫동안 쓰는 동안에 뒀고 길이 들었을 뿐입니다. 앞에 있는 초모나무는 커다랗게 자라고, 손수 심으신 단풍나무는 향긋하고 지붕에까지 뻗어 올라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은 얼마나 슬픈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중에서 수이동생이 절을 하느라고 왔다 갈타리는 반소리를 들은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매일이름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곳을 영영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수업을 마저까지 하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술자 다음에는 역사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들은 다 같이 바, 부, 비, 보, 북을 불었습니다. 저 교실 위에서는 높은 오벨 영광님이 안경을 쓰고, 두 손에 맞출법 책을 들고 그 아이들과 같이 글자를 읽느라고 베풀었습니다. 그도 열심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감격하여 떨렸습니다.

아! 이 마지막 시간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교외당의 시계가 열두 시를 쳤습니다. 그리고 뒤미처 암제류스풍이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문밖으로 돌아오는 푸르샤 병정들의 나팔소리가, 우리 문장 밑에서 요란히 들렸습니다. 아벨 선생님은 서파



발견 될까 싶을 정도로 보편적 스셨 습니다. 이 때 같이 친정님이 오 기 보일 적은 없습니다.

“어머나, 나는... 나는...”
그러나 죽어 버어 말을 끝까지 지 못하였습시다.

그의 철권으로, 살아서서 행복 은 있는 힘을 다하여 질 수 있는 데로 오 글자로 쓰셨습시다.

【불안서 인제!】

그리고 원정님은 버려진 벽에 거대코 서서, 한 없이 우리들대 게 손짓을 하셨습시다. 이 책은 다들 가지고.

(그림 • 김 의환)

(19) 아이들에게서 계속)

기실은, 파릇파릇 열매가 달 만큼의 거장(巨藏)과어서, 저글저글 수허튼 보르르 자랑 수 있다 할 니다. 그야 옛날에 살을 팔아 놓고, 그 속대까지 팔았으니라 이런 의결도 그리 처장할진 없습니다. 또 오직을 거슬로 보아서 쓰글로 이러한 일은 아님으로, 어머사른 거 아아 팔지않아 래 볼 것일니 다. 다음에 팔면으로는 눈보라가 안경기게 하는 것일니다. 이는 아파 모양으로 때로나 비칼기르 눈보라를 해부시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살을 팔아서라는 것일니다. 그런데, 이 살은 우리의 근원이 되는 근력(筋力)의 어물부대다가 팔아와, 팔 길이 우리 사는 근력 도 못오게 하면 된다는 생각일니 다. 일본일본 세계가 모두 합살 이 되어서, 서로 싸움하는데 힘 을 날미하게 말고, 이러한 함으로 글동한 일을 일렬하여 보았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스런가요.

꼭 못오게 할 수 있는나오요? 아직 나는 이런 친구에 성공한 아아거를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의 분도 글부에 힘써서 이러한 보드 글도 못다오, 생각과와 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업을 글미의 보습시오. (끝)

★선 생 님 말 씀★

정말 애국자가 되자

서울 남대문 국민 학교장 윤 형 모

나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나라의 어린이 어머 분! 나 는 정말 애국자가 되어 말하 는 것을 자랑하는 어머 학생 들에게 필설으로 부탁합니다.

각주 독립을 눈 앞의 눈 우리 나라를, 정말 나라를 기 라는 사명을 거다리고 있습 니다. 자제가 다 때부터 잘만 주고, 적마다 나라를 위한다 오 미할기만 하고, 피담과 반 들고 하는 사람인우라, 바지 코 보면 정말 애국자가 아님 니다.

자랑에게는 정복은 이 세 상에(혹은 우리 나라에, 우리 문화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집 에,) 부 있어야 잘 사람과, 물 계는 있어도 있어도 편찮은 사람과, 복복는 어 복상에 있 어서는 아니될 사람과, 어 복 가지의 충유의 사람이 있을 것일니다.

정말 애국자라면 어느 종 류의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 나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아니될 사람이나, 있어도 원 어도 편찮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 꼭 있어야 될 정 말 애국자가 될 어머 분에게 다음 에 가치를 당부합니다. (1) 독립도 되기 전에 하도 며칠만 리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 많으니, 정말 애국자는 한미 없이 미물지 않고, 묵묵 히 사기의 할 일만 하는 사 람이어야 합니다.

(2) 우리 나라가 독립이 되 머라고, 우리 민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야 나라가 받 건하는 것이니라, 정말 애국 자는 돈과 세력과 명예를 한 버지 않고, 오선 사람끼리 싸 우게 되는 원인을 없애게 하 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남 의 나라의 압박만 받아 왔었 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의 의)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많아 있는데, 정말 애국 자는 의의심이 없고 성당한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굳은 신념(信念)을 가지고 일을 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 니다.

(4) 피할 곳의 우리 나라 사 람들은 마음이 모두 거칠어 졌습시다. 정말 애국자는 남 의 결점만 지적하지 말고, 남 의 좋은 점을 찾아 배서 칭 찬하고 본받고 또 남의 인격 (人格)을 존중하며, 남을 거 무어뜨릴 생각을 말고 남을 도와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머 분 어린이들은, 원분 도 버지지 말고 이러한 정단 애국심을 가지고 자라나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 리 나라를 우리 나라에 꼭 있어야만 할 애국자끼리만 사는, 정말 평화스럽고 아름다 운, 세계에 가장 훌륭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 야만인의 화장 ★

야만인이 몸치장을 좋아한다는 것은, 3월차에 말씀드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만인들은 여러 가지 목걸이나 또는 짐승의 팔족은 새털의 모자봉을 몸에 장식할 뿐 아니라, 얼굴에 화장하는 것도 적 좋아합니다. 화장이려야 여러 분들의 어머니나 누님이 하시는 것 같은 화장이 아니라, 이상스

러운 모양으로 얼굴에다 온통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신(文身)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얼굴에 바늘이나 작은 칼로 콧구멍 구멍을 뚫든지 하여, 그 속에다 정경, 파랑, 빨강, 혹은 노랑 등 가지각색의 빛을 넣어 넣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굴 전체에 눈 흰 것처럼, 콧구멍이 활 것 없이 모두 두시두시할만큼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넣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것은 아무런 색어도 지워지지 않게 깊이 파는 것인데, 얼굴 뿐 아니라, 팔, 몸통이, 다리 등 조금도 성한 데 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 하니, 낮에 보아도 푸르도록 같이 보일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몸통이는 짐승 사람인데 이 어케편 입술일까요? 기다랗고 넓고, 마치 오리 주둥이와 꼭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 나라 여자들



의 입이라니 더 우습습니다. 이것은 동쪽 아프리카에서 사는 카리카족(族)이라는 야만인으로, 여자가 마릿 물이 되면, 위와 아랫입술 사이에 동그랗게 생긴 오그만 입술을 끼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그 물은 오게 되는 까닭에, 15·6세쯤 되었을 때에는, 직경(直徑)이 15 Cm로부터 18 Cm나 된다고 합니다. 입을 먹든지 물을 마실 때에 꼭 물

뺨할 것이지만, 이 입술이 으면 들쭉들쭉 그 나라에선 가장 미인(美人)이라니, 이보다 더 이상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입술을 크게 하는 법은 한가지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옛날도 아주 오래 옛날, 이 나라 근처에 아주 힘이 센 민족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힘을 할부로 쓰고 약한 민족을 쳐 들어가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곤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카리카족은 예쁜 여자들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것에 나뭇잎들이 쳐 들어오면, 으레히 이 여자들을 많이 빼앗아 가므로, 온 나뭇사람이 여러 가지로 서로 연구하고 궁리한 결과, 자기들은 약하고 그들은 강하니까,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여자들의 얼굴 모양을 흉악하게 하면 될 것이라 의논이 불

아, 그 후부터 이러한 이상한 얼굴과 입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용왕님 노릇하는 구름

중앙 공업 연구소 소장 안 등 혁

이런 상무들! 지난 해 여름에는 길 강바에 퍼져 두루하게 지냈지요. 그런데 비는 무슨 까닭에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랴구요? 아, 맞았습니다. 땅 위에 있는 물씨가 햇볕에 쪼여서 김이 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뭉치어 구름이 되고, 구름이 식으면 비가 되어서 도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분명한 것을, 옛날에는 모르고 별별 괴상한 생각을 하였습니까. 그 까닭은 물의 김이 눈에 보이지않으므로, 도대체 공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따라서 공기 속에 김이 많이 섞였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상을 한 것입니다. 옛 노인들은 용이라는 큰 뱀 같은 동물이, 물 속에서 사는데, 큰 뱀이나 바닷속에는 용의 일곱님——용왕이 있어서, 하늘님이 “이를 내려라!” 명령하면 수레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즐기하여 문물 봉에다 꼬리를 주저서 휘이 휘이 부리면 비가 오고, 용왕의 수레바퀴 소리나, 또는 그 부위로 바라다니는 난쟁이귀신이 구름 속에서 춤을 추고 북을 치는 까닭에, 짐짓을 하고 번갯불이 생긴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뭐 정말 그렇게 여겼느냐고요? 집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물어 보십시오. 나도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들었으니깐.

· 하지만 여러 분은 노인들이 보

르실나고 웃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도 아직 모르는 것이 하도 많고,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상을 하고 겁도내고 잘못도 하니깐, 우리는 힘차게 배우고 차근차근히 궁리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 분은 왜 더러운 것을 보면 짐을 닦라 뵈냐요? “그건 미신이라고” 그럼 할머니가 용왕님 무서워 하시는 것과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우박이 퍼붓고, 눈보라 치는 것 같은 천기에 대하여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아무리 별안간에 큰 재난을 당하여도, 이를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장마에 사람과 짐이 떠다가고, 우박에 농사가 결만나고, 가을에서 눈바닥이 깔리지고, 눈보라에 오들오들 떨고 다니더라도, 이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생이거니 어기고 지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니 저러니 그 까닭을 안냈자 별 도리가 없지 않으나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까닭을 자세히 알면 이것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분은 날마다 라디오로 기상예보를 들으시지요? 내일 날씨를 미리 가로져 주니 좋잖습니까! 이것은 라디오, 전보, 전화로 여러 곳의 날씨를 서로 연락하여서 알아 가지고, 지도 위에다가 표를 하여 무면 기상도(氣象圖)가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또 여

러 때로는 이러한 기상도와 맞추어서 생각하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훨씬 높은 하늘의 형체를 연구하여 보면, 이것이 얼마 후에 땅 위의 날씨에 관계되는 것임으로, 따라서 여러날 후의 기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평양 같은 큰 바다 위의 날씨를 누가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요. 요지를 갑자기 알려진 “라 다” —— 전파 탐지기(電波探知機)라는 것, 왜 비행기가 날고 있는 것을 몇 천 리 밖에서 라디오 비슷한 기계로 알아 내지 않습니까——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 큰 구름 층령이 있고, 이 구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일일이 연락이 없더라도, 이 기계를 팔팔 수 있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 어디 일기는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야기 한 것은, 이를려면 용왕님이 될 하려고 하나?를 미리 알아 두는 일이지만, 다음에 몇 개씩 그 실제(實例)를 이야기 하지요.

가물에서 눈바닥이 깔리도록 물석이 마르면 시골서는 어떻게 됩니까? 처성을 드리고 뿔뿔을 지지고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풍기를 뽐들시키기 위하여 데모를 하느라 창하여 뿔 쓰면, 큰 효험이 있는듯 하더라도 사실은 지는 못합니다. 이를 보게 하려면 구름이 끼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구름이 끼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나요? 우리가

여름에는 입에서 내 부는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겨울에는 하얀 김이 나오므로, 손바닥을 때면 속속한 물결이 쟁깁니다. 이 하얀 김이 구름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시켜서 좀 차게 한다면 구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생겼다고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물결때다가 물결이 뭉쳐져서, 물방울이 피오록 해야겠는데, 이 일은 공중에 극히 적은 티끌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가지 작용(作用)을 하는 것을 공중에서 뿌리면 비를 쫓아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행기때다가 물결을 뺏아 들이는 약을 안개 같이 뿜는 방법인데, 외국에서는 몇 번이나 실험(實驗)하여 보아서, 꽤 좋은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므로, 더 손쉬운 법이 연구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안개를 끼게도 하고 갈게도 하는 이야기를 들려 드리지요. 전쟁 중에 숨어서 안전하게 적을 쳐 부식자면, 안개를 만들어 휘두르고 있으면 매우 편리하겠습니니다. 옛날 노인은 도롱뇽이 산 속에서 입을 딱 버리고 안개를 뿜어 낸다고 하지만, 도롱뇽을 잡아다가 입만 입을 벌려도 안개를 뿜는 법도 알았으나, 이것도 미신입니다. 안개도 지극히 가는 물방울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쫓는 것보다 훨씬 쉬웁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급히 두꺼운 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으로 만

안개, 다시 말하면 진한 연기를 만들어서 씁니다. 한 가지 약을 공중에 뿜어서, 물결이 휘인 안개도 만들고, 또는 무가지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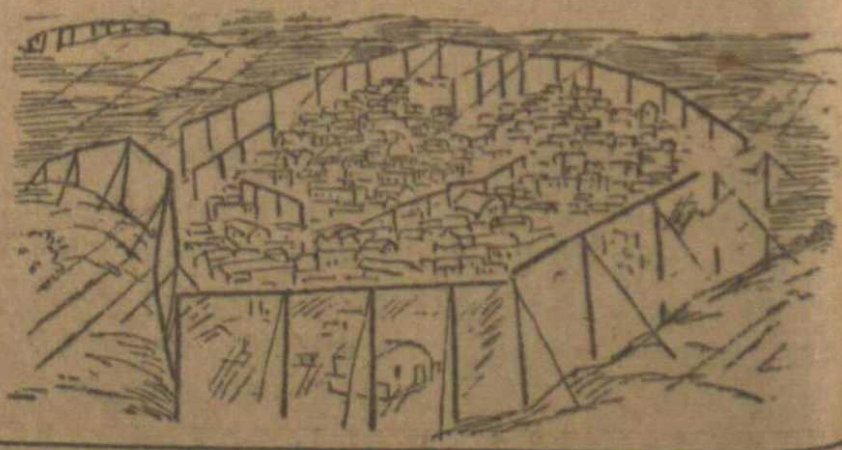
을공중에 뿜어서 이것이 진한 연기가 피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안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흙지, 아까 비오게 하는 것과는 거꾸로 공기를 더습게 하면 그만이지요. 이번 전쟁 중에도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비행장에 내려 올 수 없어서, 온 손대를 보았는데, 이런 때에는 비행기때다가 적유분을 뿜는 같이 많이 뿌리면, 이 더위로 안개가 사라져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찌 분! 우박을 아십니까? 한창 농사가 잘 되었을 때에, 우박이 쏟아지면 모두 절망하지요. 우리 나라에서도 가끔 큰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이나 소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레이스" 공인된 우박이 쏟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박은 구름이 갑자기 너무 차게 식어서 뭉쳐서 얼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여름철 우박은 번개와 천둥을 곁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떠돌이 일거리를 보아서 언젠가 우박이 내리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박을 무슨 제주로 쳐 부식나요. 아까 비 이야기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티끌이 있으면 빗방울이 속히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우박이 되려는 구름 속에 휘어 들어

가서, 티끌 (이것을 세라미 부름니다.) 즉 이 세라미 뿌리면 어떤가요? 구름이 식지마지 세라미에 걸리고, 온 일어서 눈이 온으로, 우박으로 자랄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박이 으러는 것이. 비나 눈이 피어서 밖으로 피오게 피어, 아무런 위험도 없게 할수니까? 그럴 여겨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결 속에 들어 있는 한입까지를, 온 강이 얼린 것을 보셨지요? 저 물결 없는 얼음이라는 이물므로, 여름철에는 냉방이나 "아이스크림" 만드는 때에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결기때다 쫓고, 쫓는 구름 속에다가 뿌리면 안개도 없게 할수 있고, 안개 없게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보다 더 편리한 것은, 속노온(沃水) 가루입니다. 이 가루 1 킬로그램만 뿌리면, 우리 나라의 농사철 우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겨울의 눈보라 막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요. 지금까지 연구된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실험(實驗)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그 하나는, 눈보라를 합성유리로 막을 방법이 막겠다는 의견인데, 다시 말하면 석탄과 물기로 합쳐서 제겨지 않은 유리를 만들어서, 모퉁이나 손학때다가 일거칠기 막을 만들어 두면, 한 바람은 못들어 오는

(7페이지에 계속)



연재 만화 **과학 공부** **마보이** **7월**

1 **공기**

뭐? 먹으려고 삼은 술 아니? 가 안히 있어 요술 을 부릴게.....

언니 아주 달걀을 삶아서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나 술 취했어...

2 너 이 껍질을 벗긴 달걀을 건드리지 않고 병 속에 넣을 수 있니?

3 가 잘 봐! 이렇게 병 속에다 물 들인 통이를 넣고 달걀을 병 입술 쪽으로 밀어넣어...

4 **5** **6**

앗! 이것 봐라! 저걸로...?!

아하... 그것은 병 속에 물이 들어 갔음으로 병 속의 공기가 쪼그라들어서 부풀었는데 달걀이 그 병을 막았음으로 물이 꺼져서 병 속의 공기가 차게 되니까 공기의 힘이 약해져서 바깥의 공기의 힘이 달걀을 눌러 병 속에 빠진 것이야 알았어?

아하... 암만 공기의 힘이 강해도 물병이로 하다니 뭐가 됩니까?

달걀이 빠지고 없으니... 그렇지 뭐...

7 **8** **9**

응- 그래 그러면 더 간단한 것을 가르쳐 주지 자- 이렇게 아까와 같이 병 속에다 물 들인 통이를 넣고.

그 병 입술 손바닥으로 덮고 예뻐 하면... 이때 이것을 움직이지?

아- 참 재미있다! 병이 혼자서 손바닥에 붙다니...

10 **11** **12** **13** **14**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에다 물을 넣고 엄지로 덮어 거꾸로 해 봐

물을 넣고 엄지로 덮어 거꾸로... 하면... 앗!! 언네도?

이런 마보 물을 넘도록 가득 넣어야지

자- 이때! 병 속에 공기가 없고 물만 있으니까 바깥의 공기가 치켜 올리지 안나?

장편 모험 소설 곡마단의 비밀

복극성 지음
정현웅 그림



30. 귀신 같은 계책

바깥은 선선할 짙은 밤중이었습니다. 거의 새벽가까운 밤중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상호는 기호에게,

“나는 여기 서서 요릿집 속을 살펴보고 있을 터이니, 그 동안에 당직은 여관으로 가서, 여관 밑층 주인의 방 앞에 깨달린 그 새장을 배 가지고 속히 오시오. 요릿집 문을 탈기 전에 속히 오셔야겠으니, 가다가 인력거라도 잡아 타고 속히 갔다 오시오.”

하였습니다. 기호 역시 상호의 계책을 얼마쯤은 짐작하는 터이고, 더구나 지금은 어둠이 짙은 시간 제책을 할 경우가 아니라, 두들음이 뛰여 가서 인력거꾼을 제이킬수가 가지고 여관으로 달려 갔습니다.

기호를 보내놓고, 상호는 그 요릿집 앞 어두운 벽 밑을 오락가락하며, 숨피향을 들켜다 보고 있었습니다. 일로 주인이 무어 편

안으로 들어 갔다가는 곧 다시 나오고, 술 먹던 손님 중에는 한 꽤 세 사람이 나갔으나, 그 때진 또 새로운 세 사람 한 꽤, 다섯 사람 한 꽤가 모두들 얼근히 취해 가지고 선후하여, 새로 들어 와서 각각 자리를 잡아 가지고 앉아서 술을 먹는데, 세 사람 꽤의 상에 서는, 유성기를 갖다 놓고 요란한 중국 소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체 중국의 이따위 요릿집이란 밤이 새도록 내적 문을 안닫고 장사를 하는 모양이요, 손님들도 날이 새거나 해가 들거나 마술 높고 스긋이 먹는 것이 보통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인지, 요릿집 저쪽으로부터 단장 마누라가 나오더니, 거기서 술 먹고 앉았던 키다리녀석은 버리고 밖으로 나와, 저편 어두운 길로 걸어 갔습니다.

그러자 인력거가 꾸루꾸루 요릿집 앞에까지 와서 우뚝 섰습니다. 잠깐 놀라 돌아다 보니까, 그는 기호였습니다. 문은 탈라는데로 주인 인력거는 울려 보내

고, 기호는 상호에게 새장을 쥐어 주면서,

“주인녀석은 잠이 든 모양이 드구먼, 하인이 자지 않고 있어서 물려 배 오너라고 혼이 났었소.”

하였습니다.

“그랬겠지요. 자, 이제 드디어 갑시다.”

하고 상호는 기호를 앞세우고 새장을 든 채, 또 요릿집으로 비들거리면서 들어 갔습니다.

“계름, 암만해도 술이 떨어워서 그냥 잘 수가 있습니까. 또 먹으며 왔지, 계름!”

한편 상에 쓰러지는 듯이 저러잡고 앉아서 술과 요리를 정하여 먹으면서, 상호는 지수 기호의 귀에다 때고 소란소란 비밀한 이야기를 전함이나 하였습니다.

시간이 늦어 갈수록 술 기운이 온 방안에 넘쳐지는 것 같아서, 손님들의 콧노래도 점점 높아지고 유성기 소리도 점점 요란한 꾸도꾸 같은 것이 돌아 가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

다 일어 서서 비물비를 하면서 슈성기에 맞춰 무릎을 꿇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상호는 언저시 새장 문을 열어서, 그 속에 있던 새를 한 마리 내 놓았습니다. 노랑고적다라 새 한 마리가 몹시도 시원하다는듯이 요릿집 권장으로 우뚝 날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호와 기호는 실수하여 놓친 것처럼 꾸미느라고 별뻥뻥 일어서서

“에그머니, 에그머니!”

“잡아라, 잡아라!”

하고 떠돌면서 어리 저리 새를 쫓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새 먹는 새들은, 야 이것 실심자 얹은 구경이 생겼다고, 손뼉을 치면서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가 자기네의 앉았던 머리 위로 날다가 전기등을 건드려 울아서 전등이 흔들거리고, 전등 위에 오래오래 앉았던 말한 먼지가 새를 아지듯이 요리 접시와 술잔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앉고 앉았던 새들도, 끝이 나서, 모두 일어서서 새를 잡으려고 쫓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새가 여러 사람에게 쫓겨서 피쳐 날뛰느라고, 어리 저리 날면서 동을 뻥뻥 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와 털로까지 쫓아 와서, 새 한 짐으려고 종채를

들고 혹은 비글 들고 쫓아 다니기 시작하여, 온통 수리장이 되었습니다.

유리창을 열어 놓거나 문을 열어 놓았으면, 그리로 새가 날아가고 아무 일도 없으리라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이, 이리로 우뚝우뚝 저리로 우뚝우뚝 몰려 다니느라고, 쿵쿵쿵 쿵쿵쿵 안에서 듣기에는 바깥 요릿집에 난리가 난 것 같은고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에 있던 네놈도 눈이 휘둥글하여 쫓아 나왔습니다.

그 틈에——이렇게 피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호는, 안 문을 열고 후닥닥 뛰어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새를 쫓아 다니느라고, 아무도 그것을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이나 한참이나 새를 잡느라고 소동하는 중에, 그 중에 몸이 날랜한 손님 하나가 모자를 벗어 들고 후려 갈

겨서, 구식으로 몰아 가지고 모자로 사뭇 둘러서 시원스럽게 잡았습니다.

쫓아 다니던 모든 사람이, 지원대 하면서 귀이하고 숨을 물리쉬었습니다.

“야! 요놈아 그렇게 여러 사람을 미치게 하였담!” 하면서, 짧은 새를 물어다 보고 신기해 하기도 하고, 일미워 하기도 하다가, 일어 비던 짐차에게 주려고 짐차를 찾으니까, 이상도 한 일이 지, 그들이 앉았던 상에는 새장과 음식 접시가 놓였을 뿐이고, 두 사람이 모두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기호는 상호가 안으로 들어 간 것을 보고, 조금 후에 밖으로 사라져 나아갔으니, 상호가 이 집 안에서 순자를 구하면, 3층 밑 지하실로 노망하여 저편 동네 창고로 빠져 나을 약속일고로, 자기는 바깥 길로 돌아, 그 길고



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세척이 있었습니다.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는 요릿 겁놈들과 손님들은, 웬일일까 웬일일까 하고 이상해 하면서, 걱정을 가운데다 놓고 궁금한 짐작으로만 이리쿵 저리쿵 이야기하고 있었었습니다.

31. 땅 속의 비밀 길

코모란 계책으로 바깥을 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그 틈을 타서 대담하게 마굴 속에 뛰어 들어간 상호는,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리고 다리가 떨리는 것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안에 아직도 몇 놈이나 있는지 모르겠고, 바깥에서 또 어느 때 우두루 꽃아 들어 올는지도 모르는 노릇이어서 더욱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왕 들어선 걸음이다, 잡히면 잡히는 그 때까지 해보는 수 밖에 없었고, 상호는 증제 아래로 허둥지둥 내려 가면서, 여방저 방 미친 사람 같이 휘박휘박 뛰어다 보면서, 급한 소리로 "순자야, 순자야!"

하고 불려 보았습니다. 마음은 조이는듯 하면서 급히 부르건마는, 아무에서도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점점 마음이 조이었습니다. 3층 밑바닥에까지 내려가면서,

"순자야, 순자야!" 불렀습니다.

몸중 밀방 그 밀방으로 가면, 저편 동네 창고집으로 도망해 가는 땅 속 길이 있는 방일때, 저저서

한 번 더,

"순자야, 순자야!"

하고 불렀습니다.

"앗!"

그때에 상호의 귀에 들린 것, 그것이 분명히 분명히,

"에, 에."

하는 소리였습니다.

순자 역시 아까 꽃밖에 주정꾼이 손에 쥐어 주는 종이를 받아 두었다가, 방에 들어 와서 펴 보니, 반가운 반가운 오빠의 소식이라, 오빠가 자기를 구하러 여기까지 찾아와 준 것이 고맙기도 하였거니와, 오늘 밤에 기호와 함께 구원하러 오겠다는 소리에, 이때껏 잠을 자지 않고 바깥 풍경에 귀를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도 반가운지 알 뉘 무서운것 다 있어 버리고, 상호는 와락 그 방문으로 달려 붙었으나 큰일 났습니다. 방문은 꼭 잠겨 있습니다.

"방문이 잠겼다, 방문이 잠겼다."

하고 상호는 소리쳤습니다. 어디서인지 사람 오는 발 소리가 나는 듯 나는듯 하고, 가슴에서는 불명여가 충을 주는 것 같은데, 현수여 분이 꼭 잠져 있어서 겨박을 안하여 여지 할나까.

상호는 하도 급하여 발을 뚫뚫 구르면, 어디세 수

가 꽃아 오지나 않는가 귀를 밝히는데, 그때 바로 그때, 안으로 부터 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순자가,

"오빠!"

하고 뛰어 나왔습니다.

들어다 보니, 그 땅 속에서 달로 주인이 중주 마누라가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순자를 저커고 있었는데, 밤이 깊으니까 세수고르고 길이 잠이 들어 있는므로, 순자가 그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서 열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상호와 순자는 천사로 부르고 여부가 없었습니다. 상호는 순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에, 어서 어서."

하고 저편 방으로 데리고 걸었습니다.

거기는 땅 속 길의 구멍이 클진코로 상호는, "아무 열려 달고 내 뒤만 따라 오너라."

하고 작기가 앞서서 뒤장을 펴지



고 풍다란 구멍으로 의리와 의의
 를 감히 고쳐 가기 시작하였습
 니다. 순직도 오빠를 따라 가는
 기쁨에,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도
 다 모르고, 오빠의 뒤를 따라 부
 지런히 걸어 갑니다.

적 어두운 캄캄한 구멍 길을 거
 기 거닐며, 상오의 가슴은 불시
 느 두근거렸습니다. 저급한 일이
 많았기에 뒤에서 꽃이 오지나 않
 을까, 또는 죽기 이르러서 저편
 상오를 향해 가서 거마리고 있
 으려고는 하였으나, 그 상오를 속
 사 그놈의 꿩을 더 보여달라가 두
 리를 발견하면 어쩌니, 같은 거
 구 뒤를 이어 생피서 가슴의 구
 멍이 열리는 그럴 줄을 모르는데,
 순 일이 있습니다. 이 캄캄한 구
 멍 길로 상오 남자가 나아가는 거
 본 앞쪽에 서 누군가 이르러 말하
 고 거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핏 나아가던 것을 중지하고
 들은 순간 상오는, 온 몸에 떨
 움 들을 떠는 것 같아 저기

있었습니다. 공포중가로 하지요.
 이 캄캄한 길에서 의리를 맞 부
 림지 되니 이 노릇은 어찌하겠
 습니까?

32. 단장! 단장!

그러저 알아도 뒤전에서 눈발
 이 꽃아올 것이 분명하고, 앞에는
 그 상오에 복미란의 손들이 모여
 있어서 아담이 날뚫 싶어서 가슴
 이 무겁 거리는데, 그 중 몇 각
 측에 돌면 캄캄한 길 속으로 모
 팔하는 어이로, 갈리는 모양할 길
 이 있어서 그냥 그 순직을 버리
 고 거어 나아가다가, 뜻밖의 처
 쪽으로부터 오는 놀이 어리와 어
 리가 밟아놓아서 온 몸이 으쓱하
 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상오는 가슴 속에 부르짖었
 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전
 때에도 제일 마음이 커지는 순직
 뿐이었습니다. 상오는 울짖다면

서 몸을 뒤로 앉으려고 뒤로 손
 을 내 벌여 대들어서 순직의 손
 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
 은 몸과 함께 부들부들 떨리었습
 니다.

그런 때에 불안감 얼굴 안이
 관하게 불이 꺼졌습니다. 적전 눈
 이 불을 쬐 것이었습니다. 이적
 은 부 죽었으나 생각하면서 얼굴
 을 들어 불 빛에 보니까,

“앗!”
 정말 큰 일 났습니다. 거기 불은
 활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악마 같은 무
 서운 단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앗!”
 상오의 입에서는 적절로 부르
 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는 정신도 잃어 버릴 지경이었습
 니다.

“요놈아! 이서 예리 나오너
 라.”
 침신 같이 호흡하면서 왼 손으로
 는 상오의 등덜미를 잡고 오른쪽
 으로 도로 나아갔습니다.

거마린 일이지요. 뒤에 따라 오
 던 순직은 혼자 돌아 서서 도망
 할 수도 없고 어리둥절한 마음에
 모, 이적은 죽더라도 오빠하고 같
 어나 죽었다고 물어 가는 오빠의
 다리를 만단리 붙잡고 따라 끌리
 어 나아갔습니다.

“요놈의 자식아, 어떻게 생겨
 서 그렇게 앙금하나? 조선서 비
 가 도망을 하였으면 하였지 제길
 때까지 백이 가려고 여기까지 수
 업을 붙이고 꽃아 와서 이렇게 매
 담판 짓을 하여?”

하고 천천 듯기 놓은 상오를 구
 두 발로 주러 차오는 말려 물어
 요 밑에 만들어 붙인 수업을 잡



← 약 들었습니다.

“요 양심한 놈의 자식! 언더
겉더어 보아라!”

하고 다시 발걸로 후려 차서 발
뼨에 쓰러뜨렸습니다. 굶은 줄에
 묶인 채로 순자의 옆에 쓰러진
상호의 입에서는 시멘트 퍼가 주
주주 흘러 내었습니다. 구두에
 채어 입술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순자는 소리쳐 울었
습니다.

“저놈의 배 위에 7호 불을 얹
어 놓아라!”

명령이 떨어지자 후하의 두눈
은 큰 껍딱만한 물덩이를 물이서
억지로 들어다가, 콧이여 신음하
는 상호의 가슴과 배 위에 걸쳐
달려 놓았습니다.

“내일 오경때까지만 불이 두
어라. 그러면 저절로 죽을 것
이다.”

순자는 몸이 묶인 채 그냥 몸
부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반장은 부하에게 명령하여 순자
를 끌어다가 증계 밑 구멍 방에
가서 온 몸을 벗기고 두 팔을 묶
어서 매달아 놓고, 옥마탄에서 발
을 갈기는 기다란 채찍으로 후려
갈기기 시작하였습니다.

33. 마지막

기호는 혼자서 반비동결 지면서
이 창고 밖에서 안락까운 밤을
밝히었습니다.

년 처음 요릿집 앞에서 상호와
헤어져서 곧 뛰쳐 창고 앞으로
왔으나, 그러나 그 때는 벌써 미
끈따란 만경과 그 부하 아홉 사
람이 무언기 쪽터거리면서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편이었는데로,
기호는 감격 놀라,

*아아, 인제는 큰 일 났구나.

상호가 순자를 때리고 나을
터인데, 저놈들이 저렇게 말
이 들어 가니 상호와 순자
는 죽 속에 온 때르구나!”

생각하고, 우선 골목 옆에 몸을
숨기었습니다.

생각다 생각다 못하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고 그 동안에 불행 경찰서에
두번이나 뛰쳐 갔었으나, 속직하
는 중국 순사들은 덮어 놓고,

“내일 아침에 봐, 내일 아
침.”

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조이는듯하고 그 속에
서는 지금 상호와 순자의 생명이
어찌 될는지 모르고, 못지서 미
친 곳이 날뛰는 기호는 그냥 그
집에 붙어라보 놓아 버리고 싶었
습니다.

불이 나서 불은 고노라고, 또는
도망쳐, 가노라고 소린단 관대
그 불에 상호와 순자를 구원해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
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창고 같이 지
은 벽돌집이니 성냥불만 가지고
는 모저리 어쩔 수가 없고, 또 발
채 날이 밝아서 오오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아무리도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고 못하고, 저러고 못하고
타음만 쫓 휘둥 라다가, 기호는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그 걸로 한
발음질을 해서 휘저리더 경찰서
로 뛰쳐 가지, 무엇을 하였는지
급할 모로 뛰쳐 나오더니, 아까보
다도 더 급한 걸음으로 뛰기 시
작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찰서도 믿을 수가 없
고, 이곳에 조선 시형들의 죄가

있기만 있으면 거기를 찾아갈 뻔
해 없다고 생각하고, 곧 경찰서
에 가서 조선 사람의 죄가 어디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나와서,
그러고 그러고 조선 사람 조선사
범들을 찾아서 뛰쳐 가는 것이었
습니다.

아아, 아아, 반가울은 그 관
관! 조선인 형제라는 그 관관!
술이 모기와 힘력이면서도 그 관
관을 붙여대 기호의 살해는 눈물
이 썩 으었습니다.

이름 아침이라 아침 밝 것은
원기만 나는데, 팔을 활고 있는
함은 중국 사람에게,

“회령이름 제시오?”

라고 물으니라, 아아, 어찌 단단
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웃은 중국
웃이나 말은 조선 말로 대답하였
습니다.

“지금 아침 운동하려 나가실
습니다. 곧 불이 소멸되었습
니다. 왜 그러시오?”

기호는 그 마당에서 한바 갑다
하면서, 그때저 어찌 일을 물었
습니다.

이곳 불현데만 조선 사람이 1
5,000 명이 넘는다는 것과, 이
곳 죄장은 아이는 50이적하
는, 가슴과 겨운은 붉은 정면도아
로 났다는 것과, 부인도 없고 아
들 말도 없이 의로운 몸으로 그
저 여기 와 있는 조선 사람을 구
하여, 전력으로 활동하는 이라는
것을 자제 자제 물었습니다.

물 쓰는 이화의 이야기가 들리
기 전에, 같은 죄장이 불이 소
멸합니다.

“기호는 인사로 차근차근 함서
없이, 서울서 여기까지 온 이
기와, 옥마탄에서 직라단 상호

는 소년과 순자라는 소년과, 지금 생명이 위협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줄 하듯 하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최장어본의 두 눈이 이상하게 번쩍 번쩍 빛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상오라는 아이와 순자라는 아이의 형이 길가가 아어오?”

기호는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아십니까? 잘 알 길 없습니다.”

“오, 네 아들이요, 네 딸이요.”
부도둑듯이 거북 소리를 지르더니, 최장은 다시 장강의 입을 따물고 두 눈을 두 광고 빙글 빙글이나 굴러 돌아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말이 말을 했습니다.

5분이 못되어 한 양복 입은 청년이 마당에 나서서 나팔을 크게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력 화살에 벌떡 벌떡 울러 퍼지는 세력한 나팔 소리에, 기호는 어깨 기운이 나는데 그냥 앉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5분이 못되어 양복 또는 장군 옷 입은 굵직한 검은색이 들러 셋씩 눈이 등글다져 모여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야요?”

하면서 묻는 그 반가운 조선 말들... 기호는 이번에는 기꺼서 기꺼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15 분 동안에 모여온 사람만 벌써 187 명이었습니다.

같은 최장은 높은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 본, 오늘날을 꼭 아파, 말을 듣게 되었소이다, 그리고 그쪽들은 다른 우리 조선 소년들과 함께, 최장의 최의 장로 수에 서 복습이 위협한 편이시오.”
일들은 주의를 취어 손끝에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의 가지 악후를 질러 가지고 받으니로 기운차게 북마탄의 장로를 향하여 뛰어와서 앉았습니다.

이 거본 이야기를 전대드리는 데 마음으로 기쁨에 겨웁니다. 더 길다랗게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마음이 상재할 뿐입니다.

기호의 안내로 저편 요릿길으로 30 명이 뛰어 가고, 이전 장로로 70 명이 뛰어 가고, 17 명이 밖에서 귀수를 보면서 모양 가는 눈을 잡아 묶고, 한데 한데 이 모음이 글방 글방 걸어질 곳 걸어질 곳 하면 상오와, 천장에 벽 달려서 세력까지 두들겨 맞아서 거의 기절해 쓰러졌던 순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서서 거의 10분 만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날은 증일 수색 한 결과, 모두다 불 잡혀 죽인 북마 탄철이 49

명인데, 그 중의 최장의 보였다고 믿고 보면, 같은 말이 부도둑 것과 의미가 완전히 같아졌습니다.

흥재 나온 아파 최학이 33, 관주의 무엇던 최소를 관학이 두 최학, 조선의 최희은 일광 최원 소년과 세 사람.

상오, 순자의 아낙지 조선인 원희의 심장 같은 같은 최장의 본부로 북마탄철은, 안희은 증국 경찰의 마차로 들어 보내고, 구판 김 주인도 나중에 살아간 것은 불분명합니다.

한쪽 / 한쪽 / 기쁨을 다하여 부르는 조선 말 한쪽 소리에,
“잠깐 다녀 오겠노라.”

모 악후라도 떠나는 같은 최장과 상오와 순자와 기호와 세 소년들 떠는 기차는, 조선을 향하여 언 길을 우렁차게 떠났습니다.

- 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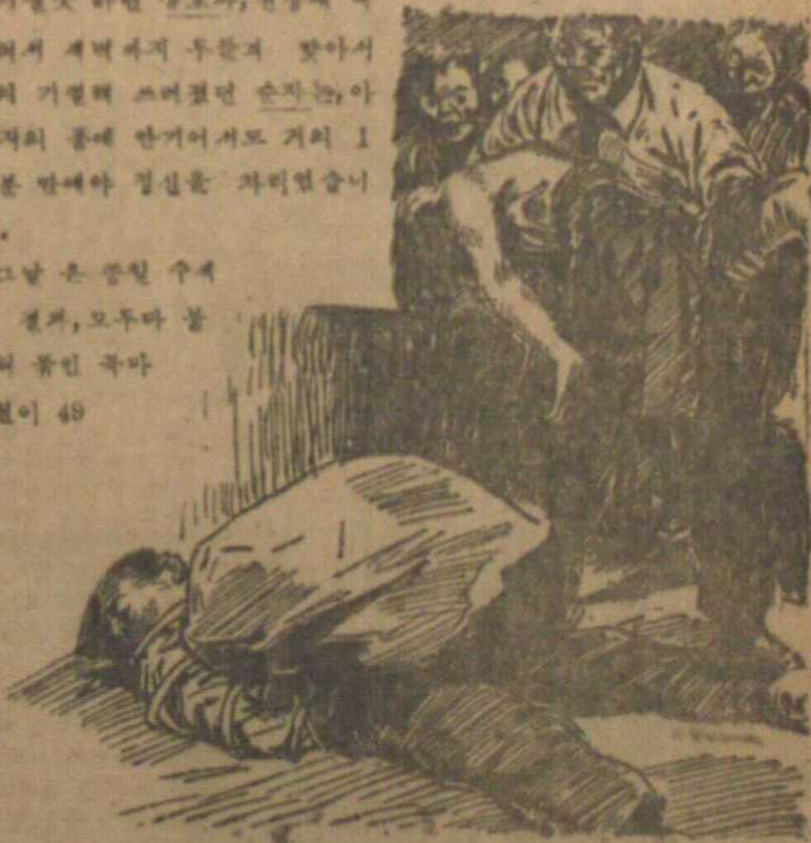


그림 * 해기

杜子春

그림 김 종민
글 이 순하



76. 열마대왕은 두가 일
을 할까지 나서, 왕자를
같은 두 눈을 취한지
뒤에 소리를 지를새로,
"그러면 왕은 수작이
있다.그놈의 새끼 개미같은
망강의 꼴이 네 소니라,
그것같은 나귀가 제 새
저를 죽도록 노릇을 하
고 있으니."



76. 이 모양을 본 것은
순 그런 거북 목 개미의
처럼 왕을 노복으로
의 제 새끼 왕을 노복으로
강제하고 싶어 했다. 개
미나 새끼의 큰 몸집으로
다져 버릴 생각이었으나
왕의 노복이 왕을 노복으로
잡을 때 미쳤습니다.



74. 열마대왕의 말이 끝나
나자 노복들은 온갖
일이 튀어나가며 일어
났다 일갈 소리가 소란
하게 울려 넘는다. 왕은
은 그놈을 바라다 노복,
아래 그 노복이가 나
귀 두마리의 목에 줄을
매어 거기도 걸고 나서
편편히 걸고 갔다.



77. 열마대왕은 왕을
그의 새끼와 새끼의
줄 편편히 바라 노복,
"나 이새끼 같은 노복
하나? 같은 노복이 새
새끼 새끼를 바라 노
복이 노복을 바라 노복."
하노 생각이 없다. 왕은
노복이 노복을 노복으로
잡을 생각이 없다.



77. 자춘이 왕과 노복이
노 복이 두 마리의
나귀를 노복이 노복,
나귀는 노복이 노복
거의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노복이



78. 노복이 노복이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79. 열마대왕은 노복이
같은 노복이 노복이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노복의 노복이 노복



80. 자춘의 두마리의
마리의 두마리의
마리의 두마리의
마리의 두마리의
마리의 두마리의
마리의 두마리의
마리의 두마리의
마리의 두마리의
마리의 두마리의
마리의 두마리의
마리의 두마리의



80. 자춘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81. 자춘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81. 열마대왕은 자춘이
열군을 가지고 이걸
을 노복으로 노복이
노복으로 노복이 노복
노복으로 노복이 노복
노복으로 노복이 노복
노복으로 노복이 노복
노복으로 노복이 노복
노복으로 노복이 노복
노복으로 노복이 노복
노복으로 노복이 노복



82. 자춘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새끼와 새끼와 새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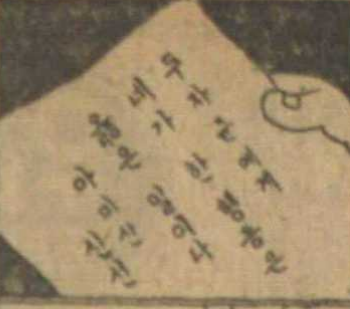
82. 발아 있다 정신은 차
리고 보니, 어찌나 아
리 는 잔의 입과 세
공로 아의할 귀의기 바
람 뛰어가 부르짖어 울
며 앉아 있습니다. 자
흔 손 거품을 면과 어찌
할라요 없는데, 팔잡한
뒤는 세는 손질 같은 표
정 일기 짜 슬라 있습니다.



83. 자흔 '어찌나 아
리지를 만나 보요 자
흔 표정하던 일기 잘
속 감
어한 생각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나 아요 그
일 한 바의만 안들면
지공수 일의 하공로
출
라 없을 것을....."
하고 지난 일을 생각하
기가 되었습니다.



87. 어떻게 자흔이 자
흔의 슬로 앉아 있는데,
어찌의 날아 왔는지
편
지 한장이 자흔의 주
를
위에 차차 떨어졌습
니다.
"아 자흔은 또 무슨
편지냐?"
하고 자흔은 읽기 시작
했습니다.



88. 편지 내용은 자
흔이
아리하였습니
다.
「주자흔에게!
내가 한 행동은 옳은 일
이다. 아의할 선선」
자흔은 이 편지를 몇
번
이고 되풀이하여 읽어
보았습니다. 편지와 할
아찌지를 생각하며.



89. 자흔은 언젠가
자
흔에게 있을 수도 없
어서 편지와 할아찌
와
같이 하고 올라왔던
편
지를 읽어다가 슬라
라
니, 편지는 날개라도
일
렸듯이, 풍상으로 소
의
늘이 날아, 자꾸자꾸
아
래로 내려가니 눈이
정
말 끔뵈다.



90. 그리공던 낯날
을
대
서
가
리
맞
아
주
는
기
도
없
고
아
는
이
도
없
어서,
서
공
로
기
그
씩
없
었
습
니
다.
편
지
는
모
든
의
먹
은
것
도
없
고
김
도
없
으니
오늘
밤
"어
디
서
자
나
리
고
기
의
있
어
기
의
지
의
해
적
이
마
십
니
다."

91. 편지 내어 꺼낼
거
의
대
기
도
없
고
"아
니
사
람
도
없
는
말
할
말
날
날
성
공
일
일
히
해,
자
흔
은
편
지
와
함
께
떨
어
질
편
지
를
입
고
정
신
없
어
프
르
르
고
앉
아서
저
난
일
을
종
종
히
생
각
하
니,
말
을
사
연
히
편
지
날
기
정
말
편
지
입니다."



95. 자흔이 자흔 "편
지
아
없
고
꺼
내
면
김
을
꺼
내
야
하
는
날
을
말
하
고
아
리
보
니,
그
날
에는
모
든
일
은
거
의
정
기
주
공
의
일
도
없
고
말
하
고
뒤
꿈
지
는
거
를
모
든
과
로
같이
보
기
할
지
부
족
하고,
감
가
심
지
리
에는
복
숭
아
같이
편
지
아
있
습
니
다."



92. 날개편 자흔 표
정
으로
정
신
없
어
앉
아
있
노
라
니,
어
찌
의
날
아
왔
는지
보
려
할
것
이
한
기
어
자
흔
은
하
고
편
지
의
해
적
주
공
의
주
공
의
날
아
올
습
니
다.
자
흔
은
모
든
의
해
적
가
떨
어
질
다
고,
김
도
없
고
정
신
없
어
앉
아
있
습
니
다.



96. 아찌의 편지 언
제
왔
는지
아
의
할
선
선
할
아
찌
지
가
자
흔
의
앞
에
나
타
다
웃
으며,
"자
흔
아,
오늘
부
디
어
는
기
김
서
살
아
마."
하고
말
했
습
니
다.
자
흔
은
너
무
"물
아
서
할
아
찌
지
의
손
목
을
잡
고
편
지
를
읽
어
보
았
습
니
다."



93. 「주자흔에게!
편지
남
쪽
편
으로
오
니
와
같은
수
가
있
습
니
다。」
하고
편
지
를
읽
는데,
김
도
없
고
정
신
없
어
앉
아
있
는
날
에는
날
개
와
자
흔
은
편
지
와
함
께
떨
어
질
다
고,
"아
아
편
지
위
다.
어
찌
의
편
지
를
남
쪽
으로
가
자."



98. 자흔이 슬라
김
을
꺼
내
려
자
는
편
지
김
이
수
파
지
고,
자
흔
은
편
지
와
함
께
떨
어
질
다
고
생
각
하
니,
김
도
모
든
의
해
적
이
있
습
니
다.
자
흔
은
그
날
부
디
조
금
도
쉬
지
않
고
아
침
부터
말
하
고
있
는
편
지
를
읽
어
보
았
습
니
다.
(중)



우리말 도로 찾기

(3)

ダアイ(工合)…①본제, ②형편.
 ダアイヨ(工合好)イ…①본제가 좋
 다. ②형편이 좋다.
 ダアイワル(工合悪)イ…①본제가
 못하다. ②형편이 좋지 못하
 다. ③몸이 날씬하다. ④창피
 하다.
 クヂビキ(御引)ス…제비. 제비잡
 기(제비잡다).
 クツ(舖)…양화.
 クツンタ…양탄.
 クフウ(工夫)スル…궁리하다 (성
 각해 보다).
 クミ(組)…반, 패, 두레(社).
 クミタテ(組立)ル…맞추다, 꾸미
 다, 짜다.
 クリアダ(繰上)ル…떡이올림, 떡
 이올리기(떡이올리다).
 クミアワセ(組合)ル…맞음질. 줄
 디맞추기(맞추다, 줄디맞추다).
 クリカヘ(繰返)ス…피골이하다.
 クロウド(立人)…구군, 익수, 전
 문가.
 ダツイシユツ(外出)ス…나들이하
 기 출입하다.
 クソイチユウドケイ(懷申時計)…
 분시계.
 クワツジ(括字)…괄자, 누자.
 ダワンキン(元金)…본전, 본,
 밑.
 ダソンバ(頑張)ル…버림, 버림성
 (버티다).
 타이キ(景氣)ガヨ(好)イ…세월,
 시세(세월좋다), (시세 좋다),
 (좋은 시절).
 타이키ガワル(悪)イ…세월이 언
 째다(不景氣), 세월없다(언짢
 은세월).
 타이コ(稽古)…공부, 연습.
 シシカラシ…제벌하다.
 케シゴム…고무지우개, 깃는 고무
 두.

クシユク(下宿)ス(下宿風)…사관
 (사관풍다).
 クシヨウ(化粧)ス…단장하다, 성
 지하다.
 クツキヨク(結局)…끝말내, 마침
 내, 결판.
 クツコンシキ(結婚式)…혼인 (혼
 때).
 グンクワン(立關)…문간.
 ケンブツ(見物)…구경.
 ケントウ(見當)…어림, 짐작, 요
 망.
 ゲンキン(現金)…①맞돈, 지전,
 ②현돈.
 コウケン(貢獻)ス…이바지하다.
 コウチイ(交際)…상봉, 교제, 추
 속.
 コウタイ(交替)…번갈음, 교대.
 コウナイ(構内)…출안.
 コウバンシヨ(交番所)…순경장,
 순경처.
 コウリテン(小賣店)…순매점, 구
 찰가게.
 코다타나(小刀)…잔칼, 꾸미니
 칼.
 코타판(黒板)…칠판.
 코타판フキ(拭)…칠판지우개.
 코타바쿠シヨク(國防色)…황복
 색.
 코코로モチ(心持)…성기, 기분.
 코코로エ(心得)…①마음먹음, 마
 음먹기(주의, 주의) ②서리(義
 理), 덕미.
 코시ヨウ(故障)…판, (공전, 지
 경).

코부카이(小使)…첩부동군, 小
 使.
 코부카이(滑稽)…익살.
 코부카이モノ(着)…익살, 익살가
 이.
 코마카이…말다, 자세하다.
 코로라…저질, 위풍.
 고타카시…추임, 말라맞추기.
 고타카스…추이다, 말라맞추다,
 말라넘기다.
 타이네ウ(鐵鑪)…바느질, 제분.
 카우ゴ(相互)…서로.
 카우ゴ(扣除)ス…쓰러질, 저출결
 (치우다).
 카우단(相談)…의논, 문의, 상
 의.
 카네(竿)…간지대, 장대.
 카사타마…거꾸로.
 카타다나…고무지우개, 고무나누서
 기.
 카탄(盛)ダアル…풍성하다, 풍
 하다.
 카탄ニ…핀창.
 카라바나(櫻花)…꽃말.
 카스ガ(流石)…바위.
 카스ガノ…판다함.
 카즈…자키나, 유복.
 카마(様)…님, 귀하.
 카레マタ…장방이, 세로장방이,
 시발코이.
 칸보(散步)ス…거닐(거닐다),
 소풍하다.
 다부톤…방석.
 쇼리(梁)…서포, 서수, 서문
 대.
 신사이(仔細)…곡면, 자갈.
 신규우(船塢)…굴, 항시, 항
 상.
 신시요(支障)…거칠.
 신타지카(下敷)…밑받침.
 쇼코(事故)…연고, 사고.
 쇼부타이(實際)…말, 참으로.
 (계속)

부지런하고 알뜰한 꿀벌 이 성 표

인간 또한 것 없는 벌과 마찬가지로 곤충인 사피엔스 만물고, 철저 경건한 살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 분도 아시다시피, 벌이 그러하고 지렁이가 그러합니다. 그중에서도 꿀벌과 꿀지렁이는 더욱 귀중한 생물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태고(太古)의 옛날, 로마(羅馬)에 주피터(朱庇特) 신령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 꿀벌들이 전기(蜂群)한 꿀을 한 잎아래 단물고 와서 주피터어 신령님께 바쳤습니다. 신령님은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의 소원을 말라라. 무엇이든 물어 달라니……”
그러니까 꿀벌들도 물어
“왕송스런 달콤이십니다. 저희들 곡수(穀類)들은 대개 궁둥이에 무서운(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만 그것이 없으니 제발 무기(武器) 하나만 갖도록 해달라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신령님도 그들의 말을 안찰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정은 물어 주었다. 그러나 꿀 송포만 먹는 수놓들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결코 사람을 벌레는 안찰다. 만약 이 악속

을 여기는 경우에는 너희들의 복수는 없어질어이다. 알아차리라.”

신령님은 일속히 다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계몽들이 수놓들은 크게 실망했으나, 무기를 얻게 된 여왕(女王)과 암벌들은 꿀을 주마달이 기뻐하였습니다.

그 주벌 때가 지났을 때, 잔아위의 꿀벌이 신령님께 하수를 짐작 잊어 버리고 사탕을 먹으며 달았습다. 그러자 천벌(天罰)이 내렸는지 별안간 그 꿀벌은 죽고 달았습다. 이 이야기는 로마 신화(神話)중에 있는 꿀벌의 진실입니다만, 꿀벌의 어상이나 다른 벌들은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와

저희 생명이 위태롭게 된 이외에는 절대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쯤이면 제대로 배내질 못하고 무기가 궁둥이에서 부러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 버리고 말게되는 자입니다.

서양 격언(格言)에 이르기를 “꿀벌과 같이 일을 하라.” 고 있듯이, 정말 꿀벌은 일을 잘하고 부지런 합니다. 꿀벌이 꿀집에 나가서 꿀을 찾으러 날아다닐 때는 매우 바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마리의 꿀벌이 필요로 하는 양식은 무서니 개의 피눈(花頭)과 같이 있으면 족한 것이니, 부지런한 벌들은 하루에 200에서 300개 가량의 꿀을 취하며 마십니다.

꿀벌의 몸중이에는 매번히 털이 나있어서 꿀을 추르며 날아갈 때 진실에 화분이 묻습니다. 그러고 몇날에는 종종 개진피가 있고, 그가정지하므로 털이 많이 나있기때문에, 한번 물어간 화분은 정맥도 세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로마 입 말에는 꿀을 빨아 들이는 기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요 외갓집 김상옥

<p>외갓집은 산 넘어 늘어질 문길</p> <p>포물포물 산 넘어 길이 멀어도</p>	<p>절집에서 문들며 꽃이 피는데</p> <p>문들며 해고 가면 이내 잡니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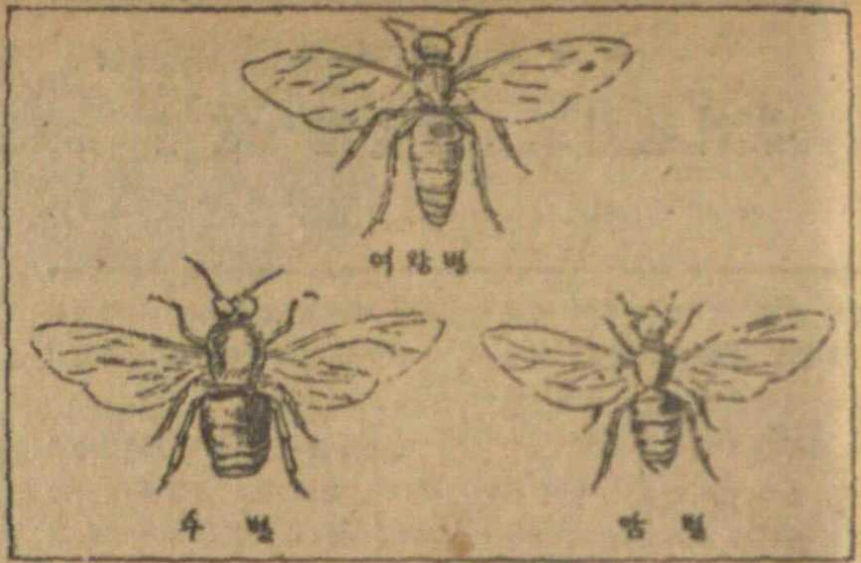


(그림 : 김 상 옥)

통과 같은 길다란 관(管)이 있고, 그 가운데로 가늘고 긴 혀가 있습니다. 그 혀 끝에는 또한 털이 많은 뿐 아니라, 컷다 오므렸다 자유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꿀을 빨아 들일 때에는 통에서 혀를 내밀어 꽃의 밑바닥 국물에다 저습니다. 그리하여 충분히 털이 국물을 흠뻑 먹었을 때, 혀를 끌어당겨서 입으로 빨아 씹습니다.

2만 마리의 꿀벌은 하루에 400그램의 꿀을 모아 들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모아 들이자면 전 세계로 퍼져서 16만 Km의 거리를 날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조선의 남북간의 거리를 대강 1천 Km이라고 하면, 그 160배의 거리를 날아야만 400 그램의 꿀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꿀벌은 부지런한 일꾼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꿀벌의 몸은 머리와 가슴과 배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큰 복안(複眼)이 두 개 있고, 그 밖에 작은 단안(單眼)이 세 개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지



우 1m 남짓한 거리 밖에 보질 못합니다. 그 대신 냄새를 맡는 감각(嗅覺)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의 꿀벌의 주각에는 1만 2천 개의 털이 나있고, 냄새를 맡는 구멍이 5천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 못할만큼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일꾼 벌들 중에도 계통별이와 느린별이와 있어서, 좀 먼 곳은 가기를 싫어하여 멀리 떠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 남의 집의 꿀을 훔쳐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벌집 본연에는 항상 몇 마리의 과수병(護守兵)이 있어서 이러한 도둑들의 침입을 막고 있으므로, 어간해서는 꿀 속으로 들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제로 침입하려다가는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수 많은 벌들이 한꺼번에 돌아와서 벌집을 지어 문으로 들어 올 때에도, 과수병은 그 가운데에 낫같은 뿔이 튀어 나온 것을 제발의 문간라고 부를 정도로 합니다.

진 3 공부

측우기(測雨器)

이즈미의 음명하십
인금 세종대왕께서

민정음(訓民正音), 즉 한글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미 어의 불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그것 뿐만 아니라, 악률(樂律...지금 음악의 음부(音符) 같은 것)에도 뜻을 두시고, 학리학자(學理學者) 박연(朴堧)을 시켜, 아악(雅樂...옛날 궁중에서 하던 우리 음악)의 정률(聲律)을 바로잡게 하시고, 또 천문학(天文學)에

관한 책도 많이 꾸미셨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것은, 측우기, 즉 비가 얼마나 오셨나 그 양(量)을 재는 기계입니다.

이 측우기는, 내관상감(內觀象監)에서 세종대왕 몸소 을 사용(尹士雄)이라 하며 수학자(數學者)와 기사(技師) 장영실(蔣英實)을 데리고 연구 제작하신 천문측량(天文測驗)의 기계의 하나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천 년 전, 우리(朝)도 만들어, 서울과 각 모에 나누어 우량(雨量)을 재게 하시고 포건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거저 모서 우량을 재는 것이 서초이며, 서양보다 3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우량을 관측하기 시작한 것은 서기 1493년입니다.

그림 속담



정성이 지극하면 불 위에 끓이 난다
 들은 글에서 나는 것이지 불 위에 이렇게 끓이 나열습니까? 그러나 정성을 쓰면 아니하는 물에도 끓이 난다는 뜻이다, 이 딱한 어찌는 일이라도 정성으로 정성껏 한다면 한되는 일이 없다는 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떠한 큰 재난(災難)이 있더라도 살아남 길이 반드시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망장 낙담(落胆)하고 슬피하지 말고, 다시 용감하게 새 길을 찾으라는 뜻이다.



얼 질 물 속은 알아도 한 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아무리 깊은 물 속이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는 있어도, 사람의 속은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니까 알아볼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친한 동무라도 정말 마음은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원숭이 흉내 내듯
 사람답는대로 원숭이가 흉내를 내듯, 다른 사람이 이런 웃을 입으면, 같이 나서 쳐도 배입고 라는 것과 같이, 겉만 보고 겉잡힌 사람을 비웃는 말이다.



(그림 · 김 의환)

★ 세계 제일 ★

큰 나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는 미국의 가리플라아 주에 사는 세쿠오이아, 기구리아 라는 나무로, 높이가 121 피트, 둘레가 60피트나 된다고 합니다.

무거운 나무... 미국의 세일모에서 나는 코모소모라는 나무는,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나무로, 크기가 같은 나무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단단한 나무... 남양 섬에서 나는 유소오보라는 나무는, 철 같이 단단하여 모피 날로 시지 않는다.

단단한 물건... 한라산이라는 금속(金屬)으로, 금강석 보따로 단단하다.

가치있는 나무... 미국의 열대 지방에서 나는 바르사라는 나무로, 줄도(벌거벗은 것)의 한 가닥의 무게 밖에 안된다.

한라계(寒羅計)... 독일 나르의 이베르판에 있는 것으로, 높이가 약 21 피트고, 한라계 눈은 겉과 25도부의 성하 25도까지 있으며, 한 날의 제일 낮았던 온도아 제일 알았던 온도까지 알게 된다. 또 이 한라계. 위에는 천우계(晴雨計)까지 달려 있고, 이것들은 모두 전기로 움직이며, 제 일해서도 볼 수 있다.

비싼 나무... 동양모에서 나는 가라노키라는 것으로, 이 나무에서 향료(香料)를 뽑는다.

비싼 물건... 라줄으로, 이것은 어떠한 갈 아시는 유명한 과학자 푸유리부인이 발견한 것.

少年三国志

박 태원 · 지음 * 김 기장 · 그림



제 4 장 관운장 (關雲長)

1. 형제 이산 (離散)

동 승의 무리는 이미 죽었으나, 조조의 마음은 조금도 편안하지 않았다. 아직도 유비와 마등이 남아 있는 까닭이다.

(그때로 두어 두었다가는, 언제 또 무슨 변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번에 아주 유비와 마등이 마저 쳐 없애 버티기로 하자!...)

그러나 마등은 벌써 서방(西涼) 땅에 군사를 물치고 있어, 잘 알지 못하니 걱정이 쉬울지 않다.

그때, 조조는 가까이 서주(徐州) 지방에 있는 유비를 먼저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염려 되는 것은, 자기가 허북(河北)에 있는 원소(袁紹)가 쳐들어 오지나 않을까 하는 일이다.

조조는,

“어찌 하였으면 좋겠소?”

하고, 모사들에게 의논하였다.

나이는 그 중 어찌면서도, 피는 그 중 많은 자가 대답한다.

“원소를 현재 의심이 많은 사

람이요, 또 그 수하의 모사들은 서로 시기(猜忌)가 심한 터이니, 저희가 무슨 수로 그러한 크나쁜 일을 결단(決斷)하여 서울을 치러 오겠습니까? 주공(主公)께서는 부디 아무 염려 마십시오.”

조조는 그 말을 믿고, 마침내 이십만 명의 대군을 몰고 거느리고 서주 지방으로 내버렸다.

유비는 곧 장비와 함께 소패성(小沛城)에 있다가, 이 급보(急報)를 받고 크게 놀랐다. 자기의 적은 군사를 가지고, 모처럼 조조의 대군을 막아본단 모리가 없다.

그는 마침내 사람을 원소에게도 보내서 구원을 청하기도 하였다.

원소의 사자(使者) 손건(孫乾)은 밤을 꼬박 하북으로 갔다. 그가 먼저, 원소의 모사 견봉(田豐)을 만나 보고 온 뜻을 고하니, 듣고 나자 견봉은 곧 그들을 끌고 들어가서 원소에게 말한다.

“조조가 유비를 치러, 이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서주로 내버리는 다 합니다. 지금 원소가 명 비었

으니, 주공께서는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즉시 군사를 일으키셔서, 바로 원소로 쳐 들어가십시오. 여짜 조조를 없애고 나라를 바로 잡을,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원소는 현과달인적은 이따 바뀐 사람처럼 않아서, 믿을 수 없으므로 말한다.

“나도 좋은 기회인 줄은 알고 있으나, 다만 마음이 산란하여 이따 바뀐 큰 일을 의논할 수 없으니 어찌 하오.”

“무슨 근심되시는 일이 있으셔서 그러십니까?”

“내가 아들은 소형제나 두었지만, 그 중 어찌놈이 제일 총명(聰明)하여, 내가 음탕히 사탕하여 오는 터에, 그것이 오사(惡事)를 음탕 음탕이 복음이 취해 두니, 내가 무슨 경황에 무슨 일을 의논하겠소?”

원소는 단숨을 쉬고 나서, 손건을 물어 보고,

“물어 가서 유정군을 쫓고, 내 말을 저처럼 어루오. 그러고 조조와 싸워서 이롭게 한다면, 나는 부디 내게도 피하러 오리라 하오.”

이 모양을 보고 견봉은 결코 있던 적령이도 망을 자멸시.

이렇게 다시 만나기 이리은
 때를 당하였지만, 잣나무 밑 라
 나로 해서 그만 기회를 잃으
 마라니, 할말이 없 아람으나 아
 짜워!”
 말을 구르면서 함석화기를 마
 겠었으나, 철 소는 역시 아무
 말이 없다.
손 조는 화를 수 없이 다시 함

석(險)으로 나누어, 성을 나아가서
조 조 영적으로 죄 묻어 갔다.
 그러나 원제 군사를 잘 쓰고
 싸움에 능한 조 조는 이러한 일
 이 있을 줄을 짐작하고, 미리 준비가
 있었다.
 이것을 잘 비는 알 띠이 없다.
 그가 군사를 이끌고 조 조 영적
 안으로 묻어 가지, 문득 사면의

가, 군사를 태번(太半)이나 힘어
 비리고 간신히 배움을 풀고 남
 왔다.
 멀리 바라 보니, 소제성은
 시련전 불길기 하늘을 찌르고, 서
 주와 하비로 가는 길로, 천과 들
 을 조 조의 군사가 적황제 덮고
 있다.
철 소



을 조
 가 소제
 성으로 돌아
 가서 철 소에게 이
 계로 복명(復命)하
 였다.
철 소를 화를 같이 받고 있
 면 철 소의 낙담(落膽)은 겁이,
 “철 소가 군사를 내려고 한라
 니, 이 노릇을 종자 이찌 원한
 달인조?”
 이 때, 장 비가 나서서 말하였
 다.
 “행남은 우리 근심 하십시오.
조 조 군사가 비록 많기는 하마
 겠지만, 여러 날 인 편을 쓰느라
 그 모두 지혈을 겪어니, 밤에
 곁에 가서 그 영적(靈藥)을 묻
 어치면, 조 조를 제트될 수 있
 을것입니다.”
 “우 리는 그 계고를 좇아, 그
 날 밤에 장 비와 함께 군사를 두

평물이 일어나며, 적부한 군사가
 일제히 아우성을 치며 말머 나온
 다.”
 한 번 싸움에 크게 계고 장 비
 는 저우 군사 수 십 명을 거느리
 고, 간신히 배움을 풀고 벗어났
 다.
 그러나 소제성 · 서주성 · 하비
성(下邳城) 으로 두하는 길은 모
 두가 조 조의 군사로 하여 끌진
 뒤야, 하는 수 없이 장 비 는 망
망산(祝融山) 속으로 도망 하여
 묻어 갔다.
 한 편, 유 비로 장 비의 귀를
 따라 조 조의 영적으로 묻어 갔다

철 소
 “.....조 조와 싸
 워서 이등지 않
 은 때에, 부미
 내게로 회하여 오
 시라 하오.”
 하더라는 철 소의
 말을 생각하 내고,
 하루에 삼백 리씩을
 말리며, 기주(冀州)
 로 철 소를 찾아가
 잠시 몸을 여탁하기
 로 한다...
二, 세가지언약
소제성과 서주
성을 함락시킨 다음
조 조는 그 날 밤에
 묘사들을 모아 놓고 앉 일을 여
 논하였다.
 “손 옥이 나서서 말한다.
 “하비성은 지금 관 윤장이 철
철의 두 부인을 모호하의 죽기
 모서 계기고 있는 데이니, 만약
 속히 치지 않으면, 반드시 철
소에게 빼앗기고 말 것일너다.”
 “관 윤장은 무예(武藝)모나 인물
 (人物)모나 함으로 천하에 모운
 사람이라, 내가 북 수하에 결우
 로 철 소, 사함을 보내서 함부를
 권하여 보는 것이 이럴까 생각
 하는데.....”
 “관 윤장은 본래 의기(義氣)를 중

라게 여기는 사람이다, 결코 항복할 수가 없지요.”

이 때, 아랫자리에서 한 장수가 나서며,

“제가 관운장과 잘 압니다. 저를 보배 주시면 가서 항복을 권하여 보오려다.”

한다. 보니 첫 모(張遼)라고 전에 여포(呂布) 수하에 있다가 조조에게 항복한 사람이다. 그도 또한 날래 장수였다.

그러나 모사 경옥은 말한다.

“비록 운장과 잘 안다,고는 하지만, 단지 몇 마디 알로 항복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고, 이제 우리가 유비에게서 항복 받은 군사를 하비성으로 들어 보내서 운장을 보고, 문에 노망하여 왔노라고 속인 다음에 가만히 내응(內應)하게 하고, 운장을 멀리 성 밖으로 끌어 내서 그의 돌아갈 길을 끊어 놓고, 항복을 권하여야만 비로소 일이

될 줄 압니다.”

조조는 그 계교를 좇아, 곧 항복 받은 군사 수십 명에게 말을 일히서 하비성으로 들어 보냈다. 관운장이 보니, 본래의 자기 편 군사들이다. 노망하여 왔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 주었다.

그 이튿날이다.

조조는 하후돈을 시켜서 성 아래로가 싸움을 권하게 하였다. 성 문이 열리며 관운장이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나온다. 하후돈은 잠깐 싸우다가 곧 밀리기를 물리어 돌아났다. 운장이 그 뒤를 쫓는다. 하후돈은 갈아 나다가는 싸우고, 싸우다가, 그는 또 돌아났다.

관운장은 진참 뒤를 쫓다가, 그제야 자기를 멀리 쫓아오는 계교나 아닌가 하고 의심이 붙어, 즉시 군사를 정수어 성으로 돌아 가며 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다. 북이 울리게 울리는 곳에 석량(徐晃)과 저가 피우모가 군사를 몰아 나오며 길을 막는다. 운장은 정신을 가다듬어 두 장수를 물리쳤으나, 그들이 물러가지 이번에는 하후돈이 또 군사를 끌고 와서 길을 막는다.

싸우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길이 막혀서 성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관운장은 조조만 성으로 올라가, 그위에 군사를 공격하듯 시위기도 하였다. 조조의 군사도 그 상을 절두 같이 세워 쫓는다.

잡담한 마음으로 그 말을 성 밖에서 밝히고, 이튿날 새벽, 운장이 군사를 다시 정돈하여 가지고 마약 산을 내려 가려 할 때, 문득 한 장수가 말을 끌고 돌아오는 위로 올라 온다.

보니 장모다. 그는 소리를 쏠아 불었다.

“문현(文選)이는 나라고 사



소 고개를 모으므로 혼돈다.

“그렇다면 내가 여불 제 운장을 걸머 두어 무엇에 쓸 만 인고?”

그러나 장 로는 다시 말한다.

“이제까지 유 럽적이 운장을 후 리 대접하였대야 결국은 은혜 를 품 배운것에 지나지 않으니, 승상께서 앞으로 더욱 후히 은 혜를 베푸시어, 그 마음을 사시 고 보면, 어찌 운장이 복종하 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조 조가 마음에 그럴법하게 생 각하여, 세 가지 언약을 다 맺기 로하니, 장 로는 곧 상으로 다시 올라가, 운장에게 이 뜻을 전한 다.

이리하여 관 운장은 마침내 조 조에게 항복하고, 그가 군사를 견 우어 돌아 가는 날, 그들과 함께 두 부인을 보호하여 터로 갔다.

三. 은혜(恩惠)와 의리(義理)와

터로 돌아 온 뒤, 조 조는 관 운장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는 운장을 자기의 부하 장수가 아니 라 저극히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다.

그는 값진 비단이며 금그릇 은 접시 따위도 많이 내렸다. 그러나 운장은 이것들을 모두 두 부 인에게 보내서 간수하게 한다.

조 조는 또 그를 위하여 내일 같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다 서 미인(美人) 열 명을 뽑아 그에 게 보냈다. 그러나 운장은 그들 을 모두 안으로 불러 보내서 두 부인을 모시고 있게 하고, 사훈 에 한 차례씩 안 때문 밖에 가서 두 부인에게 문안을 드린다. 조 조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만족하 기를 마지 않았다.

관운장은 운장

이 영고 있는

견포(戰袍)

가 어찌 남아

해야겠 것을

보고, 조 조

가 좋은 비단

으로 새로이

잔 벌을 지어

주었더니, 운

장은 이것을

받아 속에다

게 입고 결에

는 여전히 밝

은 견포를 입

는다.

조 조가 웃

으며,

“운장은 참 겸소(謙素)하기로

하오.” 하고 한마디 하니, 운

장은

“겸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남

은 견포는 전에 평님께서 내리

신 것이니, 항상 입어서 평님

의 얼굴을 피우듯 하는 것이

니, 그때 이렇듯 결에다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조 조는 그 마음

이 즐겁지 않았다.

또 하루는 운장이 따로 있는

말이, 유말의 수척한 것을 보고,

조 조는 격우에 불부하여 말을

한 편 끌어 오라 한 다음 운장에

게 물었다.

“운장은 이 말을 알아보겠소?”

운장은 한 번 보고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전에 어 조가

타던 적모마(赤兔馬)가 아닙

니까?”

“그렇소. 원하에 들도 없는 명

마(名馬)요.”



조 조가 마침내 적모마를 그대 게 내리니, 운장은 기뻐하기를 마지 않으며, 두 편 결하여 사

그 모양을 보고 조 조는 마음

에 좋지 않아 한 마디 하였다.

“내가 전에 갖은 재물(細物)이

며 버린을 보냈건만, 운장은 한

번이라 전은 하여 받은 일이

없더니, 이제 말을 보자 어렇

듯 사색을 후회 하는 것은 정

가람이오? 그때, 말이 사팔모

나도 귀하던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

에 물으니, 이 적모마는 하루

에 승의 원리를 간다 합니다.

언제고 평님의 소식만 아는 날

에는, 그 날로 평님을 찾아 외

울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조 조는 속으로 은근히 위우지

기를 마지 않으며, 운장이 물러

가지, 곧 장 로를 불러 물어 물



“승룡의 손
 때가 심리
 주한 말은
 나로 알고
 있으나, 마
 단 권의 힘
 님과 서로
 맺은 명복
 을 잊은 것
 이 없소그
 러, 네 판
 드시 공을
 세취 승룡
 의 은혜를
 갚고 이 곳
 을 떠날 결
 작이요.”

한다.
 “제 말이, 공을 세취 승룡
 은혜를 갚은 뒤에 떠나셨다고
 하였더니, 만약 제가 공을 세
 취 기의를 도루지 주지 않으시
 면, 그대는 못 떠날 것이 아니
 겠습니까?”

조르는 말 없이 두어 번 고개
 를 끄떡이였으나, 그 마음은 영
 식 의로웠다..... (계속)

삼국지 어려운 말 풀이

▲이산(離散)...잘못이 헤어지
 는 것.

▲주공(主公)... 주인(主人)에
 대한 존대.

▲사자(使者)... 사명(使命)을
 띤 사람.

▲부명(復命)...명령 받은 일을
 하고나서 그 경과를 보고(報告)
 하는 것.

▲낙망(落望)... 실망(望失)과
 같다. 곧 희망이 끊어지는 것.

▲태반(太半)...절반이 넘는 것.
 반수 이상.

▲내응(內應)...안에 있어 가지
 고 불려 투하는 것, 내통(內通)이
 라고도 한다.

▲유용(有用)...소용이 되는 것,
 쓸데가 있는 것.

▲간수하다...잘 보관(保管) 하
 다.

▲전포(戰袍)...배전에 장수가
 입던 긴 옷.

▲수적(瘦瘠)하다... 마르고 여
 켜다.

▲의사(義士)... 의리(義理)를
 중히 여기는 사람. 의협심(義俠
 心)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생활에서 일
 어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재미있는 것으로 추되어 발
 호하였으며, 풀린 문제들 보
 면 분배제는 상을 드미었습니
 다.

(학교, 학년, 이름을 잊지 말
 고 적을 것)

(소학생 편정부 과학지)

있다.

“모두들 보라들이, 네가 승룡
 을 그다지 박하게 때리는 안과
 정만, 때때로 내게서 떠날 생각
 만 하고 있으니 어찌 하면 좋
 을꼬?”

장 모는,

“제가 가서 그의 진심을 알아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불어 나와, 이튿
 날 승룡을 그의 처소로 찾아갔다.

“형님은 지금도 승룡의 유 장
 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룡이 대답한다.

“그야 바지 말끔하여 무얼 하
 요? 물론 비록 여기 있으나,
 마음은 한시라도 우리 형님을 잊
 은 적이 없소.”

“그것은 좋지 않으신 것 같소
 이다. 권의 승 장군이 형님을
 때릴라시기도 아나 승룡보다
 나 라지는 못하였을 터인데, 형
 님은 어찌 하여 두 떠나실 생
 작만 하신단 말씀이요?”

장 모는 마시 한마디 붙는다.

“승룡의 유 장군이 불쌍히 세
 상을 버리신 때에는 어떻게 하
 실 터이요?”

승룡은 대답한다.

“그 때는, 형님을 저 세상으로
 따를 생각이요.”

장 모가 돌아 가서 그때로 보
 하니, 조르는 들과 나자 림숨지
 었다.

“주인을 섬겨져 그 근본을 잊
 지 않으니, 함으로 권하의 의사
 (義士)로구나!”

승 목이 곁에 있다가 한 아디

과학 질문 모집

여러 분의 질문을 모집합
 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
 서나, 그 밖에 어디서든지
 여러 분의 알기 어려운 과학
 문제를엽서만큼 쯤이해 저
 어 보내시면, 그 문제를 과
 학 방면의 전문가인 선생님
 에게 가지고 가서 분명한 대
 답을 받아 “소학생”에 발표하

★ 우리 학교 작품 ★



서울 경충단 공부 받은 곳에,
1700명 크신데 새 학 어린이들 키
우고 있는 이 학교는, 1938 년에
광희교(光熙館)에서 분할(分割)
하여 조일공학(朝日共學)을 세
오던 중, 바람이 펴어 오는데 비
온 것으로, 지금은 조일이 조선
선생님과 조일 공 덕장 선생님
을 비롯하여, 조일의 여러 선
생님들이 백백히 조일의 일군을
만들고져 영결의 가르치시고 지
십니다. (기자)

제 4 회 서울 장충 학교치

동요 물장수 할 아버지

5 년 홍 태순

할아버지 배적배적
물 걸어 오실 때
알망찰망 통의 물이
춤을 춥니다.

할아버지 배적배적
물 걸어 오실 때
굴굴굴 밑에서
기왓길을 만드네

바람이 모라치고
손발이 얼어도

할아버지 배적배적
취는 날이 없어요



동요 오막사리

6 년 정 효숙

바람이 팔팔한
저을 날에도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 있진만

불쌍하고 불쌍한
오막사리 집들은
혼자서 추운 밤을
채우고 있어요
별만이 반짝이는
밤중이 바로
그림자 동무잖아
혼자 서있요

작문 그리운 고향

6 년 박 재 환

앞에는 넓은 경이 흐르
고, 경에는 배와 배다니며
뒤에는 동산이 숲의 숲안고
전달해듯 만발한 나의 고향,
동쪽에는 좋은 의항(義港)
이 있다. 의항에는 바닷

소학생 작품집

작문 어머니

경기 안양 대연교 6년 김철분

유수와 같은 세월은 그림 없이
흘러 우리 어머니의 언체도 벌써
60의 고개를 넘어, 얼굴은 푸갈
푸갈 하시고 힘줄이 내 비쳐 화색

이 부족하니, 그것을 보는 나의 가
슴이 애타는줄 누가 알겠나? "무
정환 세월아 거질받아라" 나를 사
랑하시는 어머니는 나의 잘못이 많
아도 타일며 혼자 하시고, 언제
한 번 야단치시는 일이 없다. 우
러 어머니의 마음은 마치 봄을 되
는 날개와 같다. 어리석부러 나를
거르시는 때는 것은 고생을 겪으시

며 때가 늦게 수고하리라 거르실
전만, 무슨 영광을 보시라고 그와
같이 하시는지?

내가 학교에 갈 때는 "늦지않
았니? 빨리 가거라. 오늘은 날이
춥다, 옷 많이 입고 가거라. 그
리고 동무와도 섞어 놀고 손순화
게 잘 다녀오니라....." 왔다오면
"슬지? 볼 속이냐." 하시며 화로

물이 출렁거리며, 어선 (漁船)이 갈라날락거리고 갈매기가 울먹거리며 날아 다닌다. 아침 일찍이 배가 고기를 잡으러 떠나면 태양이 떠 오른다. 그 때에 그 경치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다. 배 위에 바닷물을 끓은 빛으로 물결이며 커다란 태양이 불끈 솟아 올라, 그 빛을 갈매기가 서너마리 죽죽 울면서 지나간다.

고깃잡이 뱃속에서, 팔팔하고 놀기 좋은 고깃잡이



노래가, 이질 향기를 짙고 어촌까지 불리운다. 하루종일 서쪽으로 동쪽으로 다니며 고깃잡이를 하고, 저녁 늦어서야 어항으로 돌아 온다. 어선 북대기엔, 고기가 어디 있나 보는 사람이 서 있는 큰 뿔이 있다. 그 배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거기서 북을 뚝뚝 두드리며 입항 (入港)한다. 그러면 어촌 사람들이 큰 북을 이고 바닷가로 나가 배가 오길 기다린다. 배가 육지(陸地)에 닿면 고기가 붙은 큰 망과 풍을 내리놓아, 그 때의 옛사람과 어촌 사람들은 거룻배에 날뛰고 있다. 살아 온 고기를 또다시 배에 실어 작지로 보낸다.돈이 많이 생기면 어촌 사람들은 밤새도록 즐겁게 노는 것이었다. 1년에 한 번씩 어촌에서 오는 울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해 달라는 제사를 지낸다. 그 때는 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었다. 이름에도 복잡하고 거

술에도 복잡한 나의 고향인 이 어촌을 떠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리운 고향! 정든 고향은 뒤에 남기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올 때, 남기고 온 동무 생각, 동무들과 같이 재미있게 놀던 생각이 그 광경이 눈에 아련히 나타난다. 아! 고향! 정들고 그리운 내 고향!



도화 5의1 김 영규

달이 밝구나 수탉이 운다

습자 5의2 이 만석

을 가져오시고, 따뜻한 어머니 손으로 배 손을 누어주시며, "배 고프지? 어찌 밤 먹어라." 하시는 우리 어머니는, 밤이면 팔찌에도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 느린숨 취미는 감겨졌다. 또 자다가 어머니 빛이 거면 덮어 주시고, 요가 멀리면 잡아 주시고, 피계가 내려지면 띄어 주시는 우리 어머니는, 남 보지에는

새르른, 입은, 좋은, 나르른, 나 애제는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세상에 쓸모없는 어머니시다. 옛날에 그 어머니가 자식을 가졌을 때, 불뚱이 한번 이고 온만큼 의 온종일 못 잤다는 말이 있다. 우리모진 그때서야 될 일인가. 산에 날으는 까마귀도 어머의 손덕

을 이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불효해서 될 것인가. 어머니 말씀은 순종하고 공경하여, 큰 일을 성취하여 자기 여음을 빛내는 것도 어머니께 효성어요.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하여 사회사업을 하는 것도 어머니 마음을 거르려하는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어머니께 효도를 함자중요 해야 된다. (끝)

새 연재·소년 소설 봄의 노래

정 인 택
그림·김 의 환



(1)

동호(東浩)는 숨을 죽이고 앉아서 안방 미닫이를 열었다.

양복장, 의결이, 이불장, 그리고 아랫목쪽으로 시계와 필묵과 책들이 얹힌 문갑.

모두가 처음 대하는 듯이 눈에나 마음에 제르운 것이 신기했다.

방안에 찬 바람이 오는 때문인지, 동호는 가늘게 몸을 떨고, 조심조심 양복장 앞으로 다가다가, 제 끝에 스스리쳐 놀란다, 기습이 덜컥 내려 앉았다.

인기척이 난듯 싶었던 것이다.

문 틈으로 마당쪽을 살폈다.

아무도 없다. 갓난이는 부엌에서 설것이에 바쁜 모양이다.

“왔다.”

동호는 문 살 같이 달려가서 양복장 문에다 손을 깨었다.

팔리, 팔리……언제 어머니가 돌아 오실지 모른다. 동호는 떨리는 손에 힘을 주었다.

할카닥—힘을 주는 바람에,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잠기지 않았었다는 안심보다도, 동호는 먼저 그 요란스런 소리에

지질려 정신이 아찔 하도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호는 마치 누구에게 묻키기나 한듯이, 얼른 다시 양복장 문을 밀어 닫고 또 한 앞을 살폈다. 조금 전과 다름없이 고요하기만 한 것이, 오히려 두렵기까지 하다.

그렇게 몇 번, 양복장 문을 그리고 설함을 열었다 닫고 문 밖을 살피고 하는 사이에, 어느 틈에 차차로 울렁거리는 동호의 가슴은 진정되고, 일종 리얼에 가까운 흥분이 얼굴을 발랄게 물들었다. 떨리던 손도 인제는 제압해졌다.

설합 속에 든 지진 뭉치 속에서 동호는 드디어 백 원짜리 잔 뭉치들 때 내는듯 성공했던 것이다. 이때 원만 꺼내려던 것이, 초조한 남아지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동호는 가방과 모자를 개 방에다 쟁개치고, 성난 얼굴로 말없이 마당에 내려 왔다. 그때야 겨우 복잡한 감정을 갓난이 앞에 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제네 안 띄우 어디 가우.”
견차 앉게 갓난이가 흐르르 부엌에서 따라 나온다.

“……”

동호는 멧구로 안하오, 무겁게 갓난이를 흘릴 뿐이다. 그러고는 여전히 성난 얼굴로 주먹주먹 문 밖으로 나갔다.

“나 불루, 나중에 온나루.”

뒤에서 악쓰는 갓난이의 말을 뿌리 치듯이, 동호는 문 밖에 나서자 경승 뒷골목을 향해서 마음껏 지기 시작하였다.

동원히 무엇에지 찾기는듯 하여, 동호는 얼마 동안 숨이 턱에 닿도록 걸음을 빨리 하다가, 전차길에 나서서야 겨우 주머니에 주서 넣은 백 원 짜리 지퍼를 꺼내 보았다.

좀처럼 먼저 보지 못하는 백 원 짜리다. 부르스름한 빛도 떨어지지, 깨끗한 맛이 제법 무척 있어 보였다.

동호는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띄우려다가, 얼른 다시 그것을 감추고 말았다. 불려 돈을 꺼냈다는 사실을 위우쳐, 자꾸 양심(良心)이 꼬지않게 하는 때문이다.

시계방을 거웃했다. 약속한 시간이 5분 밖에 안남았다.

“지연……벌써……”

깜짝 놀라는 것으로 맘 생각을 안할 걱정이야. 동호는 부끄럽게 전차에 뛰어 올랐다.

“이직시아, 인제 와?”

전차에서 내리는 동호를 바라보고, 형애는 눈을 부라렸다. 가족이나 웃쟁진 얼굴을 펴그리니까, 흥악하기 딱이 없다. 무척 으스스한 기미가 보인다.

평지 있을 합작을 느끼면서
 동호는 직지로 갖다 보려고,
 "이자식아, 뭐 있었어?"
 입맛을 딱딱 다식면서 빙글빙
 굴웃어 보였다.
 "30 분이나 기다렸어."
 "누가 별다른 일적 모르던."
 두 소년은 허리를 나란히 하여
 사람들 틈에 끼어, 풍모 모양이
 화려할 만으로 일 있는 사람 같
 이 섞여 들어 갔다.
 "별거?"
 형제가 거편 목소리로 물었다;
 앞은 바라 본 제다.
 "뭐?"
 풍호로 시침이를 딱 치고 편편
 이다.

"별거?"
 "절대적이다" 앞에서 발을 걸
 을 형제는, 이번엔 고개를 보리
 키고, 그러나 똑 같은 어프로 문
 신다. 그때야 한층 위엄이 더 잘
 것을 아는 제문이다.
 "응."
 그것을 더 진찰할 형은 풍호에
 게 있었다. 풍호는 고개를 그리
 이고 가만히 형제의 옆구리를 껴
 온 두, 한 전 구석으로 붙어했다;
 아주 서자 형제는 알뜰없이 안
 손을 살짝 내 밀다.
 풍호는 어색한 우습은 입가에
 미면서.
 "과나만?"
 "리나? 리나 가지구 이자
 식아, 저
 네덕구 구
 경 가?"
 "그때우
 하나 밖에
 안됐어...구
 경은..."
 형제는 모
 우습은 천
 다.
 "응, 거
 것말 받아.
 이자식아네
 가 모를 줄
 아너?...네
 와 이서..."
 바빠 막
 아 서는 형
 제의 기세
 에 풍호는
 물어질 여
 유조차 없
 이,마로 등
 처 저고리

뿌이내 잠수있던 이때 형을
 저침이 내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사이 좋게 정제를 출
 라 갔다.
 하나, 중, 첫...식당까지 올라
 가면서, 송 한 번 드쳐 쉬지 않
 았다.
 비범할 한 그곳을 계는 잠수못
 먹고 나서도, 또 무슨 경만 같은
 것을 접적어되고 있는 형제를,
 풍호는 '기가 딱히 바라 보았다.'
 "적은 치역제,"
 "자아식은...이카짓거..."
 형제는 이른 모양으로 굵고 억
 겹 주먹을 내 두르며 자못 간쪽
 알 모양이다.
 "구경 갈 시간 늦는대어잠..."
 "잡히기두 하다. 그러니까 잡
 할이제지,"
 "절긱쟁이가 무슨 잔소리야,"
 식은 차를 마시며, 두 소년은
 잠간악의 없는 눈초리로 느껴 보
 았다.

(2)

풍호는 나이에 비하여 키도 작
 았고,몸도 가늘려 "좁쌀"이었고,
 형제는 키만 우리우리 할 뿐, 바
 짝 말랐면서 "절긱쟁이"다. 학교
 들어 가서부터, 불은 별명들이다;
 서로 성적을 따부는 사이요,
 제구모 어떻게 말랐으나,집이 가
 깡고, 뜻이 맞아, 두 소년은 한
 시로 서로 절을 떠나지 못하고 지
 내 왔다.
 그러나 그것도 3 학년까지였
 다.
 3 학기 시험이 거의 끝날 무
 렘에, 별안간 "절긱쟁이"는 학교
 를 퇴학하고, "좁쌀"에게까지 은
 다 건다 소식 없이, 미아원지 어



던저로 이사를 가고 말았던 것이다.

아이들 사이에 드는 중문에 의하면, 형대 아버지가 정승으로 뽑혀 나간 때문이라고도 하고, "야미"를 하다가 잡혀간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것은 하여간에, 그때 동호가 느낀 서운한 감정만은, 지금도 동호 머릿속에 역력하다.

그것이 바로 해방 전 해.....

그러하여 그들은 거의 2년 동안이나 서로 만나지를 못하였다.

의아한 동호는 집에서 의도했고, 학교에 가서도 의도했다.

그러나, 전쟁은 일본의 패전으로 끝났고, 학교는 새로운 제로 아래 다시 열리었다. 우리 나라 글과 우리 나라 역사를 새로 배우느라고, 얼마 동안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 날로 된 일이다. 책방에서 나오는 동호의 여객을 눈썹이 띠었다.

"잘 있었니, 좁쌀아?"

형대였다. 부지중 동호도,

"절굿쟁이..."

악을 썼다.

그러나 앞에 마주 선 동호의 형대는 아주 편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었다.

못내 그림던 별명을 부르면서도, 동호는 현일인지 멧멧개가 못했다.

형대는 이미 동호와 같은 종류의 소년이 아니었다.

차림차림도 그랬지만, "절굿쟁이"란 별명은 이미 적당하지 않으리만큼, 팔과 다리와 몸이 전장하여졌었다. 아너 그뿐 아니라 얼굴에도 어딘지 어론 같은 때가 섞여 보이며, 동호는 무심코 동호의 앞에서 풍문아를 때려뜨리지 하였던 것이다.

"너...너...요새 쫄 더니?"

동호는 거의 말짱하여 붙었다.

물론 순간, 어쩔지 형대와 자기와는, 딴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이 느껴져서 적적하였다.

형대는 잠깐 망서리는듯 하더니, "볼지 쫄해!"

그렇게 네 뺨을 때리고 나서,

얼른 화제를 고치려는듯이,

"너, 어디 가니, 지금?"

"집이 가—책사리 나왔었서."

"책?....."

형대는 반문하고 나서, 잠깐 무

뺨을 생각하는듯 하더니,

"너...일 없지?"

"응."

그때이는 동호의 얼굴을 물고 러미 바라 보면서,

"같이 가자."

형대는 명백 하듯 말하고 말을 서는 것이다. 형대의 말 속에는, 때로 속에는, 모처럼 할거 못할 성연함이 엮 보이며, 동호는 무감 없이 그 뒤를 따랐다.

그때 같이 따라 가지만 함있어 보...자기가 점점 타락되어 가는 것 같은 허수월이, 동호의 머릿속을 스릴 때이다. 할 이렇게 후회 하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런 생각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였다. 다음 순간엔 타락되어 가는 그 과정(過程)에서 동호는 일본어 때까지 꿈도 못꾸던 제감을 찾아내고—그러면 그만 동호는 형대와의 약속에 충실한 소년이 되고 마는 것이다.

무 때(代)나 계속 되는 죄악은 이기 때문에, 또 타락이 필한 성전도 남에게 지지 않는 것 때문에, 동호는 어찌까지 부끄러움 같은 것을 분했다. 사랑에 주된 지도

★ 피마 과학 ★

물떡총 놓는 물고기

로르소비라는 담수어(淡水魚)는 대개 열대지방, 즉 동인도 제도, 호주 북부, 미들랜드, 포르테네시아, 뉴유지랜드, 또 남양제도에 있는 파라오도(島)의 강이나 개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넓적하고 목이 넓은 것으로, 잠으로 이상하고도 재미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토인들은 이 물고기를 팔을 잘 쓰는 물고기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물 위를 날으는 벌레나 또는 강변 가까이 있는 나뭇잎에 앉아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물 위로 머리를 볼록 내어밀고, 보폭한 입으로 그 벌레들을 향하여 물을 고때모양 내뿜어서 벌레들을 물 속으로 밀어뜨리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내 뿜는 때의 소리는 아주 상당히 커서, 이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역시 동호 이서의 한 안에서의 생활에 지나지 못했다.

동호는 형태의 이끄는 관복에 어울리어 미모로 그 한 남자를 닮지다 본 것이다.

그 세계는 동호에게 있어, 조선 여지(婁地)의 세계였다. 모든 것이 호기심(好奇心)의 대상으로 되었다. 병이 나아지려는 소년의 마음은, 빠른 속도로 남을 닮아서 문밖으로만 한 밖으로만 유유했었다. 부모와 학교의 눈을 피해가면서, 가끔 손으로 책의 나막신을 그정과 속의는, 무릎을도 펼쳐 있었으니, 동호와 소년의 어떤 보필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더 달랐다.

그 앞에서는 절단된 원수같은 너무도 많이 미약했던 것이다.

형태와 처음 맞은 날, 미모로 동호는 중요했길이라는 존재를 알았소, 성화관의 화의함에 다시 한번 놀랐던 것이다.

그 날부터 그들은 거의 매일 같이 싸움이 되어 돌아 다녔다. 말장은 일제는지 형태가 있다.

형태는 어느 차이에 이렇게 버려 가지 세상 동정을 띄웠을까— 동호는 가끔가다 동호의 그것한 의 눈발을 감하지 못했다. 그의 한 차이에 그것이 자작로 일종의 관경에 가까운 간장으로 변했다. 그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니었다.

형태의 생활은 모두가 동호로서는 알 수 없는 동호의 것이었다. 형태의 생활 뿐 아니라, 형태는 일제 처지를 대거하지 않았다. 동호는 그것이 잠시 강금했으나, 형태의 태도는 언제나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형태의 생활이 어떤 "제일"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더욱 신비로워 보일 뿐이다.

그렇다고 아직도 그 "제일"을 대의 볼 생각도 없다.

동호는 형태가 이끄는대로 부모도 불우도 모르게 피학을 구하러 다닌 수마 있으면 그것으로 죽었다.

직을 일의 동안 이와 원유한 이유는 전부 형태의 지출이었다.

그러나—어찌 할이다.
"결정아—나—은 있어?"
살짝 형태가 이런 말을 들었다.

동호는 뜻 밖의 말이다. 선택해서 형태를 취다 보고, 그리고 세상스럽게 일하기 제 본이라고는 단 1원을 가지 본 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낼 수 밖에 없었다.

"나?.....없어....."
어찌까지 어찌 자작로 삼복을 지은 형태 앞에 그것을 포함하는 것은, 적지 않게 동호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었다. 동호는 불행이 또 한번 낮은 무소의로,

"나—은 없어....."
그렇게 되풀이 하고, 요계를 물어보였다.

"저야식...너야길 부까지?"

"....."

"정말 없어?"

"응."

"어 원두 없어?"

"어 원?"

5 원이나 10 원이라면 주 집에 가서 재봉할머니를 불러서라도, 어떻게 주면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다 막대한 금액이다.

"그래...이놈아. 너야길 부까지야? 그까지 돈함 질여가 빌래."

흙을 추는 풀

열도의 수(壽)나 이야기에서 정(精)이라고 불리우는 잔디스 잔 주 때에는 흙을 추는 이상한 풀이 일대의 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풀은 관목(灌木)·모목(樹木)보다 작고, 줄기라고 할만 한 것이 없고 땅 근위에서 가지 같은 줄기가 많이 나오는 저저 작은 식물)의 종류로, 열도의 전설에 의하면, 이 풀은 온 죄를 갚

아므로, 남서부의 죽을 때까지 해금모 취지 않고 벌금만큼 그 있을 풀이며 흙을 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풀의 잎은 크로오라라는 풀 같이 잎이 셋이며, 그 중의 하나는 꼭 크고 양쪽에 있는 줄은 아주 작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두 잎은 두 잎이 1분 반 반씩 한 번씩 취지 않고 아래 위로 동그아머를 그리며 회전(回轉)하는 것으로, 이것은 벌에서 보아도 볼 말 수 있다고 합니다.

다. 그렇지만, 이 운동은 온도(溫度)와 밀접(密接)한 관계가 있어서, 섭씨 21 도의 한 곳으로 옮기어는, 벌써 이 풀들은 그 되고 합니다. 이 이상한 식물을 여러 세계의 식물생리학자(植物生理學者)들이 머리를 짜내어 왜 좋은 마뭇한데서만 추나? 왜 작은 잎 풀만이 활동을 할까? 왜 여러하여 연구하였으나, 지금까지는 그 이유(理由)를 밝히지 못한 채, 그러므로 전설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라구?”

“뭘라구? 자아식은... 그냥 쓴다
구 잘래지 못해. 너의 어머니 내
말이라면 뭘든지 물어주지 않
나?”

동호는 또한금 껌이고 말았
다.

“잘하게 잘래 있나?”

한참 판매 동호는 자카스로 그
것을 불렀다. 그러나 그 말 후에
동호의 굳은 결심으로 물어 있었
다. 행패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는,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 보
겠다는 결심이다.

“만들 수 있나?”

“응, 별이면...”

“자아식, 별야 겨우... 그래라,
그럼 그 때진 2백 원이다, 두 번
들어 가져구 오지?”

“응.”

어제 밤새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동호의 머릿속에서는
2백 원, 2백 원, 2백 원, 한시
도 그에 대한 걱정이 떠날 사이
없었다.

때론 씨 볼 핑계도 없었고, 거
짓말할 구실도 생각 나지 않았
다. 장 설함을 뒤져, 흥취다른지
라는 일은,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
못했던 바이다.

그러나— 설혹 돈을 흥취 것이
탈모 되어, 부모에게 매를 맞는
란이 있더라도, 행패의 약속만
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
의 동호에게는 무엇보다도 민족
스럽게 생각되는 것이다. 어느
점에 있어서는, 지금의 동호에게
는 행패는 없지 못할 동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어저서 혼자 집에 돌
아올 두렵이긴, 불안한 이상한

모욕함을 느꼈고, 불안해지는 것
도 또한 사실이다.

요사이의 자기의 행동에 대한
소년다운 후회와, 두려움과, 마
음 아픈 자책(自責)도 그 속에는
섞여 있었다.

더구나 오늘은, 집에서 돈을
흥취했다는 큰 죄를 자각하는 만큼
큰책루 혼자 떨어져 집에 돌아
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혹시 물기거나 앉았을까... 불렀
으면 뭘라구 변명을 하나? 그게
잘못했습니다고 물어 빌까?

그 많은 돈 중에서 몇 장 잃어
있다고 알려 줘나. 어찌면 한도

서 행패는 모러이 일종의 불신을
느꼈는적,

“난— 뭘라구?”

결 격은 낮은 소리로 뒤를 따
르며 불는 것이다. 미처 여러가
지의 동호와 행패의 위치가 바뀔
못 했다.

불도 마흔도 저절로도 꺼져,
동호가 집 앞에 이르렀을 때는
얼 깬 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때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떻게 해야 흥취지 못했다.
동호는 말라쳐 소리를 속여 가며
수 없이 자기 집 벽은 앞을 왔다
갔다 하며, 가슴을 쓰이웠다.



되자 갑

고 그대도 님

어 갈지도 모로지. 그

러면 다행이다마는... 그렇게
무사히 지나가기만 한다면
다시는 그런 것 안할테니...

망서리고, 주저하고, 그
러는 사이에도 노 발금 보모
나온 영화 속의 장면들, 비
군의 전차(戰車)며, 비행기
며, 화염방사기(火焰放射機)
며가 한데 엉클어져, 머릿속
을 빙빙 돌고 하는 바람에,
일파전 사람 같이 동호는 걸
을 걸는다.

동호는 조금 걸까지 시시
덕거리던 입을 꼭 다물고,
행패 앞에 서서 걸리는 만큼
으로 겨우 걸었다.

— 행패의 때도 속의

가난의 갓난이를 불러 불러,
 명랑 밤 문장 문을 두드리 불러,
 대답하게 때문을 손뼉고 어머니
 를 찾아 불러.

모두가 수일할 것 같기도 하고
 모두가 손일 날 것 같기도 하여,
 공짜로 입을 전환 일이 없다.

동호는 거문간 문을 삼파라리
 다 거꾸고 리발을 쳐다 보았다.

말이 짧다. 손뼉으로 보름인걸
 몇 몇편지, 리갈 리나 없는 거문
 간이 승평에 날이 없다. 아까까
 지로 보였던느의 구름 한 질 보
 이지 않는다.

그 제복한 말질을 나리 보고
 있는 사이에, 별안간 동호의 무늘
 내는 눈물이 펴 들었다. 이후로
 무엇이 아루아를 구슬이 피어 언
 무한 말그림자를 띄워 가면서 무
 령을 끌어 떨어진다. 갓난이 시
 손했다 그 다음에 복이 제었다.

동호는 더 밤을 수가 없었다.

부모의 무지함도 무정기 같았
 다. 자신의 위우심도 무서운 것
 없었다.

동호는 면적 복부 느끼고, 그
 다음에 쓰리를 내어 들었다. 그
 리고 나서 화락 일러들어,

“갓난이”

악을 쓰면서 때문을 손뼉고,

“어머니, 어머니”

그림을 차면서 때문을 탁했다.

(3)

명 빈 안방에서 갓난이가 날
 리 온 밤장을 손지서 때하고, 동
호는 차마 어찌 어머니 불려 온
 온 공회 년 양복장을 정시(正
 觀) 못하며 밤일이 복을 넘어 가
 리 알도록, 커다란 위우심을 걸
 려 느끼는 것이다.

아무리 부모의 것이라 하지만



우리 학교 교 가 ☆

서울 북성 국민 학교

북극성은 하늘나라 등대입니다
 북성대는 우리들의 등대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빛나는 우리들의 등대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틀에 모여
 잘 배우고 잘 자라자 북성동무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집에 모여
 잘 배우고 잘 자라자 북성동무야

(윤 석중 지음)

모독경에는 다름 바 없었다. 그
 러면 나는 모독놀이 되고 믿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제맛이 그
 리를 벗어 없앨 수 있을까? 다
 시만 그런 것은 안락하면 피리라
 마시만 안락 뿐 아니라, 전과 같
 이 또 한 번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하리라. 공부도 열심히 하리라.
 내년에는 중학교에도 들어 가야
 하겠고……

동호는 혼자서 일말을 불리고
 소년다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다시는 절대로 절대로——라고
 밤 술가락 팔자마다 피로회복도
 목 글게 마음을 먹는 것이었다.

어떤 일가 되는 강안 아주머니
 의 명판이 위복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에 어찌 몰아 소식을
 못했었다. 서울 사는 일가라곤
한 아주머니 한 분 뿐이기 때

문에, 동호의 정안에서 췌일까지
 모두 허리를 해야 할 적이었다.
 이것은 어찌 밤 문을 열어 무
 며 계종알머니가 들리줄 말이다.
 그리고,

“이런 값다 어떻게 늦게 오우,
 어머니 계시면 무지람 물을려구,
 저녁이나 자셨수?”

그런 말을 할 때에, 동호는 울
 음 섞인 목소리로,

“헐 걱정야, 헐 걱정야, 함은
 이가……”

어머니가 안오신다는 말에 정
 신이 빈적 나는듯 하였으나, 그
 것은 슬기피고 이렇게 고향을 질
 려던 것이다.

“아이구, 그만 두구려. 난 또
 걱정이 되니까 그랬지. 그럼 어
 시 들어가 자구려. 술진 또 해
 울음……”

—거기까지 동호가 생각하고 슬
가락을 놓은 후 승승을 벌럭벌럭
들이 마시면서, 참 어제는 다행했
었다고, 아마 다시는 나쁜 짓 하
지 말라고 하느님이 저지하신 것
이라고, 동호는 마음 속이 시원
해지는 것 같다.

오늘부터는 전과 같이 착한 아
이가 되어, 시험 준비 하겠더니,
참 승안엘 가야... 동호가 입 맛을
제책 다시며 마루 위에서 구두끈
을 매려니까, 누군지
밖에서 동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상하게도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동호가 그
속으로 귀를 기울리거
는데, 마실 밖에 나갔
던 장남이가 우뚝따
뒤어 들어 오며,

“아유, 도련님, 절구
쟁이가 왔구며, 턱두 오
며 감람에 썼지... 손이
이렇게 적가져구.”

동호는 지도 모르게
구두를 신은채, 방 속
으로 뛰어들어가 숨
으러리며,

“그리 오다구 그랬
니?”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것은 비명에 가까웠
다.

“있다구 그랬어?”

동호가 풍문을 들 때면서, 또한
번 그렇게 되쳐 묻고, 그리고 장
남이가 제 그것에 무엇이냐 대답
하기 전에, 형애는 제 손으로 풍
문을 펼치고 넘죽 뜯 안에 들어
서는 것이다.

30

“너, 벌써 학교 가니?”

이렇게 되고 보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동호는 여태까지의 경
그했던 얼굴을 일흔 처면서,

“벌써가 뭐야, 이자식야, 늦었
지.”

하연히 감간 형애의 뉘뉘스런
행동을 올려 보다가, 동호는 일
흔 시침을 다른 곳으로 끌리며,

“시간 늦는다, 가자!”

하고 형애를 밟아 내뺏 밟으

“그런 경당 안가구?”

“그저길엔 날이나 가서 열리
자아직부, 열이 친구 우리 권
구경이나 가자.”

“권구?”

“그대, 구다부구일하. 권구
수러구 내가 잘 권리다. 권구
수 알지?”

“몰라.”

“음말은 할수 없지. 권구수
몰라?”

동호는 어느덧
형애의 유혹 속에 굴
복하는 자기 자신을
안정하고, 감마 놀다
정신을 가다듬으며,
“몰라”

무뉘스런게 되
다.

“너 경당 어디가
?”

수오면서 말하는
데의 그 말투 속에
두서운 기척이 숨어
는 듯하이, 동호는 무
중 소름이 죽 떠렸다.
일마동안 형애는 수
말유물리게 동호의
마다 오더니,

“동호야.”

정색하고 부르
서,

“그럼, 같이 안가는
대신, 이자식이

너!”

하고 손을 내밀다.

“벌금?”

“그대, 두 장만 내다!”

“...없어, 현 돈이 있어!”

동호는 그렇게 대답리려다,
문고려 생각하고,

(30 페이지에 계속)



끌고 나갔다.

“너, 쫓겨버 이렇게 일찍 왔니
?”

그러나 형애는 그것에는 대답
않고,

“오늘 정말 학교 가니?”

이런 면질을 하는 것이다.

재소식

일본은 우리 조선을 노리고 있다

그들과 싸우는 재일동포

지난 30년 동안 우리를 소외
같이 압박하고 착취한 것을 저
생각해도 억울하고 저가 떨
리어는, 전 세계 전지 조선의
뜻, 일본은 다시 착취스러운
것으로 우리 조선을 노리고
있다. 그들이 우리 땅에서 물
리쳐, 우리는 할 보낼 수 없다.
것은 늘을의 무기가 무성하여
것은 아니다. 그들을 버려
고 있는 우리 동포가들을 일
과와 그러한 것이요, 물체는
한 이웃나라 백성을 불쌍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
의 불쌍하게 우리의 동포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을
하고 시거하고 받들러기 시작
했다. 소위 정부의 모반이란
은 일러줄 갈아 떠들거를, 조선
사람들은 모두 모두 놓여라니,
선은 저의 땅으로 만들어야
스니, 영어의 없는 잠꼬치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있는
말 무머가지고 백아니 사원부에
항거하고 조지를 해서, 우리
들은 아주 나쁘게 심전하고
게, 이것이 요지음에는 더욱
취적거 가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도 여실 전에 들어온 소
식은, 그들이 우리 조선에
어떠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조선 백
간의 지라면 가인의 들로
소리가 아니다.

작 지난 3월 1일 일본 정부는
저를 공포들에게, 조선 사
를 잃었고, 조선 사람도 일본
로 데다나게 할 것, 조선 한
로 되게 할 것 등, 여러 역사에
있는 일들을 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잘알게
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다. 무슨 이유로 우리의
과 말을 못하게 하며, 조선
말을 배우라는 것이나? 그
속은 백안한 것이다. 우리
가 낮잡아 보지 않는 어의
수작이다. 우리는 조선의
위하여 일본 정부와 싸우자!
30년 전의 조선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일본에 있는
본 정부의 야만적인 관
행에서 명
렬히 싸우고 있으며, 조선
모 일대 민중을 일으켜 일본
에 항거하기로 하였다.

화성 식물 새로 발견

사람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가 알성이 많은 화성(火星)에,
특한 식물(植物)이 있다는
것이 이번의 증명(證明)이었다.

그것은, 화성이 가장 지구
가 가까이 온다는 2월 18일,
미국 록
스만원문에서 특수한 지의선(赤
外線)을 발견한 것으로, 화성의
지의선(赤外線)을 통하여 지구
(地球)식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화성의 극지(極地)에는, 지구와
같이 물도 얼어 있으며, 이
극지(極冠)는 하루에 100
마일의 속도(速度)로 뒤로
물러가고 있다 한다.

말에도 기저귀

그러지 않아도 거리가
더워져서 길 가는 사람들의
상을 미끄러지게 하는
때, 말과 지 갈아 다니
모기에 등한뿐 아니라
시면의 위생에도
해이롭지 못한 일이라
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내에 있는
말 건 부에게
기저귀를 써주기로
되었다.

(38 페이지에서 계속)

.... 아나. 차라리
들게 주어 보게구...

동호는 무머야에 손을
넣어, 어찌 스다 남은
물 속에서 백원
짜의 두 장을
꺼내 물었다.

“자아—인
견 짐으로
오지 말
이. 짐으로
찾아 오면
나하군
인제
신는다!”

동호는
꼭 웃고
메킹스
렇게
동호
손 위에
있는
돈을
꺼드
면
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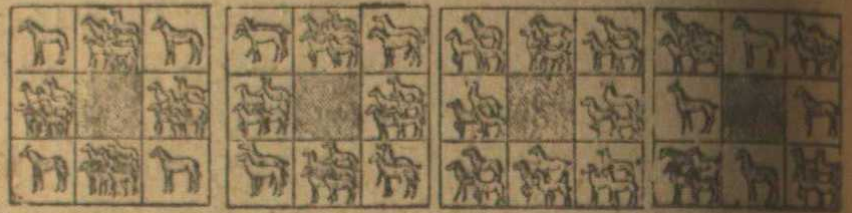


재미 있는 심 공부

옛날 어느 곳에 아주 방정맞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재산이라곤 한지 말 32 필 뿐이었는데, 그 중에는 보록이 심하여, 풀밭 말이 없게하므로, 날마다 연구하고 머리를 짜낸 결과, 마구간을 만들었다. 그 마구간은 네모 반듯한 것을 11개로 쪼개서 같은 모양인데, 가운데 빈 곳에 집을 짓고, 말 먹이 물을 두기로 했다. 그리고 ①그림과 같이 말을 넣었는데, 이렇게 쪼개면, 가로 세로 어느 모로 보아도 인형로는 9필씩 되는므로, 그 사

말은 어느 줄이든 9필씩만 있다면, 자기 말은 잃어 버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한 보록놈이 와서 말을 몇필 훔쳐 간 다음 남은 말을 ②그림과 같이 바꾸어 놓았다. 이튿날, 주인은 일어나 마구간을 보러 왔으나, 가로 세로 어느 줄이고 9필씩 있는므로, 마음을 놓고 있었다. 다음에 이삼일 지난 어느 날 밤, 또 약은 도둑놈 하나가 말을 훔쳐 가고, ③의 그림과 같이 바꾸어 놓았다. 이튿날



①

②

③

④

또 그는 마구간에 와서 보았으나, 그 건 같이 여전히 9필씩 있어서 또 안심하고 있었다.

또 그 다음 날 밤에는, 다른 약은

보록놈이 하나 끌어와서 말을 훔쳐가고, ④그림과 같이 말을 바꾸어 놓고 도망을 갔다. 이튿날 주인은 또 말을 보러 마구간에 왔으나, 말은 여전히 9필씩 같이 있었다. 안심하고 말을 끌러 그는 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현일인적 말이 저어진 것 같이 생각되고, 또 그 사이는 말 먹이 물도 아주 저지르는 것 같으므로, 그는 이상스럽다 생각하고 머리를 가우뚱거리며 마구간으로 갔다. 마침 보록놈은 정갈 말을 훔쳐 갔으며, 훔쳐 간

다면 몇 필이나 훔쳐 갔을까요? 맞추어 보십시오. 학교나 집에서 오는 시간에 등우들며 같이 해보시면 재미 있습니다.

◎ 아버지 자랑

물들이... 너의 아버지는 무엇이나?

북남이... 우리 아버지 너의 아버지보다 높다.

물들이... 우리 아버지 두지 (두취) 야?

북남이... 흥! 우리 아버지 천지란다.

물들이... ??? (서울 방산교 6의 3 유 윤환)

◎ 명 달

별본 시간에

선생... 떡을 열 개 먹고 그 위에다 또 다섯 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남이... 배탈이 납니다.

선생... ??? (서울 종로 5가 고기떡)



◎ 잠 꼬 대

갑... 우리 잠자기 내기 할까?

을... 그래 그래.

갑이 먼저 물을 코를 꿀면 서

갑... 내가 먼저 잠 들었다. 을... 잠든 애가 어떻게 말을 하니?

갑... 이걸 잠꼬대야:

을... ??? (서울 정순교 4년 김 중상)

◎ 문

북동이가 심부름을 간다가 방에 물어 올 때에, 방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아버지... 북동아, 방 문을 꼭 닫고 물어 오너라.

북동이... 문을 꼭 닫고 어떻게 물어가요 아버지! (서울 사범대학 부속 국민교 5년 김 영우)

◎ 탐 배

권동이... 아버지, 왜 진저 장수시몬 으메히 담배를 피우세요?

아버지... 그야 밥먹은 것 소화 잘 되라고 피우지.

권동이... 그림 소화를 잘수시면 더 좋지 않아요.

아버지... ? (서울 정제교 5년 임 무일)

소학생 구락부



만들고 나서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소학교 6학년이올사
다. 좀 일제기 연차드리고자 하
였으나, 오늘 처음으로 연차드리
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
대까지 여러 학교의 교가를 “소
학생”을 통하여 읽어봤으나 아직
우리 학교의 교가에 따르지 못할
듯 합니다. 편집부 여러 선생님,
우리 교가를 읽어보시고 실려주
십시오. (경남 부산 성남교 6년
박 태웅)

▲저는 “소학생”을 권에서부터
보는 애독자입니다. 그러나 어대
까지 아무 작품도 안 보였으나
이제부터는 좋은 것을 자주 보내
겠으니 잘 지도하여 주십시오.
(서울 중암교 김 봉훈)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소학생”에 나오는 “꼭마단의
비밀”은 참 재밌어요. 저는 “소
학생” 하고 아주 친한 글동부가
되었습니다.
(서울 덕수교 송 진숙)

▲“꼭마단의 비밀”은 이밖에
끝이 없습니다. 더 재미 있는 소
설 “왕의 노래”를 살려주세요.
(기자)

▲“소학생”을 만드시는게 피곤
할것 같습니다. 여러 기자 선생님
편이 취했는지요? 나는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학생”은 어떤 선생
님이 만드십니까? 꼭 가르쳐 주세
요. (서울 광희교 3년 김 국영)

▲여러 선생의 어린 동무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어떻게 된
은 불지만 모두 힘이 나서 일하
고 있습니다. “소학생”을 직접
편집 (꾸미는 것) 하는 분은 “아
협”의 심 은성 선생님이십니다.
(기자)

▲“소학생”을 읽어 주시는 기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으로 피웁니다. 작품을 두 가지
보내오니 잘 고쳐 주십시오. 그
리고 또 하나 물었습니다 “소학
생” 11월지 52호 27페이지
“반가운 소식”에 있어서 최 용
철 군은 조선 출판회 대회에서 2
시간 36분 37초라는 대방후
에 신 기록을 세웠다 하였는데, 그
것은 서울부 선수보다 느리지
않습니까? 그럼 안녕히. (계성
중학교 6년 송 명환)

▲네, 그렇습니다. 대방 후 신
기록이라고 한 것은 조선 안에 있
어서의 기록을 말하는 것이니 오
해 마시기 바랍니다. (기자)
“소학생” 3월지는 잘 보았습니
다. 그런데 종이가 나빠서 글씨
가 보여져 않아서 좋은 종이로
박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북 권
주 강 필수)

▲독자 여러 분에게 미안한 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지
부터는 전부 좋은 종이 (정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기자)

★본과 들에는 결국이 무르익고
흔흔한 바람이 차오르 들어 온
다. 겨울 동안 따뜻한 산곡으로
갔던 개펄과도 넓은 대평야를 그
리고 조선의림을 건너서 이 땅에
다시 찾아 오겠지. 그런데 그로
다의 선적 조선의림 지진이 일본
에선 날아다 날아다 울지 못한
소식만 들리기도 있다. 일본 정
부는 그곳에 있는 조선 사람의
학교를 없애려고 갖은 수단을 다
하며, 징규같은 미친 개척의름
을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대전에
선 나이던 조선 어린이가 그중
알대 맞아 물어졌다. 정말 문란
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정의 (正
義)는 이긴다. 우리는 정의로서
그들을 이겨코야 할 것이다.
★지난 56호 (4월지)부터 “소
학생” 값이 50원으로도 올랐다.
그것은 값이 좀 비싸더라도 읽기
좋은 책을 여러 분에게 드리기
위함이다. 앞으로 종이 값이 편
어지면 “소학생” 값도 훨씬 낮게
할 작정이다. (심 은성)

1945년 5월 1일 6월
소학생 · 값 10원
5월지 ★ 제 57호
發行人 尹石重
發行者 兪 協
1947년 5월 20일 2월 22일
서울 1000 2대 永南堂
電話 (內) 39790 · 39720
總發賣 乙酉 文化社
賣店 * 文華閣 * 鍾路 2 街
서울신문社印刷局
1947年5月31日 2월 22日



난로

①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불을 쓰기 시작하였다. ② 지붕에다 구멍을 뚫고 방에서 불을 피웠으며, ③ 그 후 화로가 발명되었다. ④ 더 따뜻하게 하려고



모오마에선 온물을 만들었다. ⑤ 15세기 말(末)에 풍모와 같은 난로가 발명했는데, 이것이 지금 스

모오부의 시초다. ⑥ 18세기 구라과의 벽난로, ⑦ 최신식(最新式) 벽난로, ⑧ 지금부터 한 20년 전 불탄서 사람 사보오가 15세기 스토오부를 개량시킨 것. ⑨ 더 편리한 전기 스토오부.

옥동이



6

이영춘 글



2
오늘은 일요일이니
오래간만에 낚시길
이나 갈까.



3
옥동이 저를
나보다 먼저
와서 있구나.



4
음, 대가 잡을
고기를 처놈이
잡네.



5
이름아, 저기는 내가
말하는 자리가
비켜.
여기가 어
찌서 네 자
리란 말이냐?



6
무슨 말
말아야
전방지게.
저놈이 놀리고 뭐
저러리 때문 뭐라지



7
야! 또
한 마리 잡
았다.
저것 봐 내 고기
가 저리루
잡어.



8
안주면
어쩔
터냐?
낚시대를 빌려
와 너만 잡나.



9
나쁜 놈 남의
낚시대를.
어 뭐냐는
잡게.



10
앗! 굉장히 큰 놈
이 걸렸나보다.



11
야아 자꾸만
들어 간다.



12
어쩔 나쁜
놈은 할수
없어.